

2008. **3** Vol. 195
www.bsculture.busan.k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커버스토리 _ 브로드웨이 42번가 오리지널팀 부산공연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_ 봄처녀와 흥난파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_ 체코

생활 속에서 만나는 판화예술 이야기 _ 히로시게의 '에도백경'



2006
최우수
공기업 선정

2007
우수
공기업 선정

2007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수상

미래를 아는 부산도시공사... 우리의 미래는 바로 고객 여러분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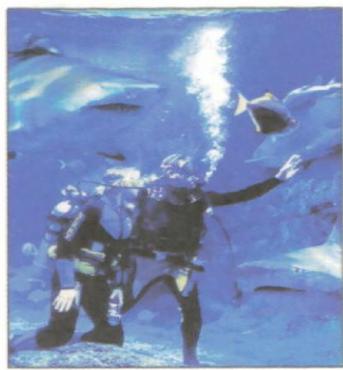
고객, 인재 그리고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는 **BMC**가 되겠습니다.


BMC
부산도시공사

주요추진사업 부산신항배후부지 조성,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화전산업단지 조성, 미음산업단지 조성, 장안산업단지 조성, 정관택지조성, 추모공원조성, 테크노파크 건립, 주거환경개선(4개지구)


BMC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로 138 (614-707)
Tel. 051)808-2662 Fax. 051)810-1400 <http://www.bmc.busan.kr>



대한민국 대표 해양테마파크-
신비로운 해저세계-
부산아쿠아리움 10% 할인

- ▶ 날짜: 2007년 12월 1일 ~ 2008년 11월 30일
- ▶ 시간: 평일 - 오전 10시 ~ 오후 8시 (마지막 입장 오후 7시)
주말·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10시 (마지막 입장 오후 9시)
- ▶ 타 할인혜택과 중복할인 불가
- ▶ 쿠폰제시시 1매 4인까지 10% 할인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전망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대인 5,500원, 소인 4,500원)

▶ 날짜: 2008. 1. 26(토)~3. 31(월)
▶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 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 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늙은 부부이야기 10% 할인

▶ 날짜: 2008. 2. 22(금)~3. 16(일)
▶ 시간: 평일 오후 7:30/토요일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장소: 가마골 소극장
▶ 입장권: 균일 25,000원
▶ 문의 및 예매: 051-245-0042

※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Since 1981 -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 퓨전레스토랑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수준높은 연주와 해설이 있는 오후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3월 8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 프로그램 및 출연진

- 아리랑(춤/이정인, 김진영, 윤은하, 이현주, 전해련)
- 도살풀이춤(춤/김동숙)
- 훈령무(춤/류권홍, 최의옥, 김윤희)
- 변검(중국전통가면극)(특별출연/이훈 · 경상대학교 민속무용학과) 등

※ 안무/홍기태(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 해설/박소윤(부산시립무용단 기획)

3월 15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합창단 연주회 '봄의 인사'

■ 프로그램 및 출연진

_ 봄처녀	_ 산촌	_ 사공의 노래	_ 사랑가(헌제명의 오페라 춘향전 중)
_ 봄(비발디 사계 중)	_ 친구생각(헌제명)		_ 남춘(김규환) 등

• 출연 _ 소프라노/이정희, 홍승현, 김나영, 양은제
_ 테너/김진영, 조성기, 권정은, 최춘식
_ 엘토/박성혜, 장은경, 정은영, 김윤희
_ 베이스/ 문동환, 최기호, 오승중, 박원한

※ 지휘 및 해설/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3월 22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교향악단 '펠리체 앙상블'

■ 프로그램 및 출연진

- 슈포어/바이올린 2중주 라장조 작품 67-2 중 제1악장
- 로시니/첼로와 더블베이스 2중주 라장조 중 제3악장
- 헨델/두 대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3중 소나타 사단조 작품 2-8 중 제2, 4악장
- 베토벤/현악 4중주 제1번 바장조 작품 18-1 중 제1악장 등

• 출연 ViolinI. 이상진 ViolinII. 우소라 Viola. 홍영선 Viola. 김상철 Cello. 서송은 Double Bass. 윤강희

※ Piano. 이은정
※ 해설/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2008년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 놓치지 마세요.



▶ 4월 11일(금)

울산 장생포 고래박물관, 맑은내 배꽃마을

고래박물관에서 고래에 대하여 배워보고
서생 배꽃마을에서 봄기운을 느껴보는 하루.

- ▷ 09: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10 고래박물관 도착 - 고래박물관 체험
- ▷ 12:00 배꽃마을 도착 - 점심식사 후 각종 농사체험
- ▷ 15: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6:00 배꽃마을 출발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 5월 9일(금)

김해 허황옥 유적지, 장군차 시배지

수로왕비 허황옥 신화의 흔적을 따라 떠나는 아름다운 봄빛 여행.
허황후가 인도에서 가져왔다고 전해지는 장군차 시배지를 둘러보고
장군차를 직접 만들어 본다.

- ▷ 09: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김해 백운대 도착
- ▷ 10:30 허황후릉 및 구지봉 견학
- ▷ 12:30 중식
- ▷ 13:30 장군차잎 따기 및 장군차 만들기 체험
- ▷ 17:00 김해출발

■ 테마여행 응모방법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예술에의 초대〉에 있는 응모엽서를 작성하여 3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 한달동안 신규가입한 회원 중에서도 10명을 추첨, 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주)레임 투어편(1544-2579)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박호성과 전영록의

11.1 종이학이야기



출 정수민, 오수연, 김주연, 김미란, 김경미
노래 박성희, 정선희
모듬북 신문범, 최오성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08. 3.6(목)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공동주최 ■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일보사 THE BUSANILBO
- 공연문의 ■
 - 부산문화회관 625-8130 www.bsculture.busan.kr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 부산광역시립국악관현악단 607-6110 www.bsgugag.com
- 입장권 ■ **균일 10,000원**
 ※ 정기회원 : 홍보부에 예약 후 계좌입금회원에 한하여 20% 할인(1인 4매)
 ※ 단체관람 : 30명 이상 단체신청시 10% 할인

예매처/ 부산은행

전 인터넷 예매 **ticketlink** 언제나 좋은자리!

www.ticketlink.co.kr
콜센터 1588-7890

3

March 2008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전시실

■ 2008 한국 난 대전-대전시실
3월 15일(토)-3월 16일(일)
조재홍(583-5176, 011-591-2162)

■ 가야미술대전-대전시실
3월 19일(수)-3월 21일(금)
김동준(806-4295, 019-546-9913)

■ 대한민국 서예대전 및 미술 대상전,
문화상 시상식-대·중전시실
3월 23일(일)-3월 25일(화)
박효덕(701-5950, 010-3854-5950)

■ 제 14회 대한민국 서예대전-대·중전시실
3월 26일(수)-3월 29일(토)
최연성(868-5236, 011-864-3698)

■ 제 21회 대한민국 어린이 우표전시회 -대전시실
3월 31일(월)-4월 4일(금)
김용진(02-2036-0860)

국제회의장

■ 제 1회 시민클래식교실
5일(수) 14:00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 제 1회 시민클래식교실
12일(수) 14:00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토론회
13일(목) 14:00
남구선거관리위원회(633-7656, 016-528-7343)

■ 제 1회 시민클래식교실
19일(수) 14:00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 전국서화협회 시상식
23일(일) 10:30 김경순(010-5701-6603)

■ 제 1회 시민클래식교실
26일(수) 14:00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 제 14회 대한민국 서예대전 시상식
29일(토) 14:00 최연성(011-864-3698)

●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화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을 비롯한 부산문화회관 공연은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3/20 중극장 2008 제 26회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극단 76극단 '관객모독' 15:00, 18:00 3만원 · 2만5천원/한국연극협회 부산지회(645-3759), 가마골소극장(245-0042) 소극장 2008 제 26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나비맛 '락' 16:30 2만원 · 1만5천원/나비 맛(325-7078)	3/31 대극장 엄정행의 데뷔 40주년 기념 리사이틀 테너 엄정행의 겨울 목련화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 CAC에바라지(017-568-6055) 중극장 연제문화원 춘사량무용단 제 1회 정기공연 19:30 무료/이숙재(016-818-2065)		
3/22 대극장 뮤지컬 '싱글즈' 14:00, 18:00 7만원 · 6만원 · 5만원 AN시티(1644-4484) 소극장 제 9회 경희 바이올린 정기연주회 15:00 무료/이경희(011-579-2339)	3/23 대극장 엄정행의 데뷔 40주년 기념 리사이틀 테너 엄정행의 겨울 목련화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 CAC에바라지(017-568-6055) 중극장 연제문화원 춘사량무용단 제 1회 정기공연 19:30 무료/이숙재(016-818-2065)	3/24 대극장 피아니스트 박종화 초청 독주회 19:30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 예은예술기획(632-6904)	3/25 중극장 피아노를 위하여 유영욱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유영욱(010-3198-1035, 011-879-3333)
3/29 대극장 아리아와 함께하는 무도회 시즌 2008 18:00 균일 3만원/이수정(011-393-5118) 중극장 제 32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장은정(017-842-6688)	3/30 중극장 단비울 남성양상블 제 7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강성철(632-5603, 018-760-6468)	3/31 중극장 남구오륙도무용단 제 1회 정기공연 19:30 초대/오륙도무용단(011-591-5130)	3/31 중극장 남구오륙도무용단 제 1회 정기공연 19:30 초대/오륙도무용단(011-591-5130)
3/16 대극장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공연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14:00, 19:00 12만원 · 10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 AN시티(1644-4484) 중극장 황정미, 강남길 피아노 듀오리사이틀 19:30 균일 1만원/강남길(010-7795-0035)	3/17 대극장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공연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20:00 12만원 · 10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 AN시티(1644-4484) 중극장 22nd 유:콘서트 11:00 균일 1만5천원/국제신문사(500-5222) 예술기획(0505-700-9798) 대극장 한국음악협회 부산지부 2008 제 18회 신춘음악회 19:30 무료/한국음악협회 부산지부(634-1295)	3/18 대극장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공연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20:00 12만원 · 10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 AN시티(1644-4484) 중극장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공연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20:00 12만원 · 10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 AN시티(1644-4484)	3/19 대극장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공연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20:00 12만원 · 10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 AN시티(1644-4484)
3/23 대극장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공연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14:00, 19:00 12만원 · 10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 AN시티(1644-4484) 중극장 최운정 피아노 독주회 17:00 초대/예은예술기획(632-6904)	3/24 중극장 독일가곡연구회 제 33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김현식(011-566-4172)	3/25 대극장 이슬리스티와 기타대책이 함께하는 행복 나눔 콘서트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 이슬리스티(747-1567, 010-3038-7191) 중극장 독주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원영애(011-844-0762)	3/26 중극장 유니슨 콰르텟 제 3회 정기연주회 19:30 2만원 · 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Thursday

Friday

Saturday

대극장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박호성과 전영록의
11시 종이학 이야기' 11:00
균일 1만원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중극장
부산음악사랑회 제 3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박성만(010-2567-4209)

대극장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공연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20:00
12만원 · 10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
AN시티(1644-4484)

중극장
제 1083회 MBC 목요일음악감상회 '부산청소
년 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홍화철(016-510-0753)

대극장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공연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20:00
12만원 · 10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
AN시티(1644-4484)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춘음악회
년별 뮤지컬 'JUMP' 와 함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JUMP
2008'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7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소극장
윤선애의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노래
19:30
균일 2만원/윤선애(011-9388-4358)

대극장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공연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20:00
12만원 · 10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
AN시티(1644-4484)

소극장
2008년 신명,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19:00
최아철(010-5194-6183)

대극장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공연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20:00
12만원 · 10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
AN시티(1644-4484)

중극장
양상블 모데르나인 부산 창단연주회-
새로움을 향하여 19:30
2만원 · 1만원/아트뱅크코레아(442-1941)

대극장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28회 정기연
주회 '봄에 전하는 사랑이야기...' 19:30
균일 2천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1~4)

중극장
2008 제 26회 부산연극제 개막식 19:00
한국연극협회 부산지회(645-3759)

소극장
2008 제 26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나비맛 '락' 19:30
2만원 · 1만5천원/나비맛(325-7078)

대극장
뮤지컬 '싱글즈' 15:00, 19:00
7만원 · 6만원 · 5만원
AN시티(1644-4484)

중극장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환상과 마법의
가족 오페라-모차르트의 '마술피리' 14:00,
17:00
4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
그랜드오페라(610-1004)

소극장
대연 엘림음악학원 제 1회 정기연주회 15:00
무료/이세희(010-2928-6720)

대극장
부산가야금 연주단 제4회 정기연주회
'가야금 천년의 소리-금상첨화' 19:00
부산가야금연주단
(510-2944, 011-863-5336)
KNIN(850-9250)

중극장
부산멜로소오케스트라
제 5회 정기연주회 18:00
초대/이순희(017-563-5067)

소극장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공연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70)

대극장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공연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15:00,
20:00
12만원 · 10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
AN시티(1644-4484)

소극장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합창단 연주회
'봄의 인사'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70)

대극장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공연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15:00,
20:00
12만원 · 10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
AN시티(1644-4484)

중극장
부산 YMCA 오케스트라 제 10회 정기
연주회 17:00
장진(010-2980-0115)

소극장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 6중주 펠리체 앙상블 연주회'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70)

중극장
2008 제 26회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극단 76극단 '관객모독' 16:00, 19:00
3만원 · 2만5천원/한국연극협회
부산지회(645-3759), 가마골소극장(245-0042)

소극장
2008 제 26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나비맛 '락' 19:30
2만원 · 1만5천원/나비 맛(325-7078)

Contents



·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TEL. 625-8130, FAX. 607-6079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
길1(대연 4동 848-4)

· 발행인 정우연
· 편집인 박원철
· 편집장 백경옥
· 발행일 2008년 2월 25일
· 인쇄처 (주)세한기획 TEL. 865-0080,
FAX. 852-7085
614-05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
동 263-4 하이웰 B/D B1층

■ 표지설명 :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여 전세계 뮤지컬 애호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42번가' 오리지널팀 내한 공연이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04 부산문화회관 3월 공연 일정

06 Cover Story

'브로드웨이 42번가' 오리지널팀 내한 공연

08 Preview

12 반갑습니다

부산음악협회 신임회장 이승호

14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봄처럼' 와 흥남파_김상훈

16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예술과 자유를 사랑하는 보헤미안의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체코_이승주

19 황윤기의 월드뮤직여행

속명의 바다, 그 운명을 노래하는 파두_황윤기

20 생활속의 판화이야기

히로시게의 '에도백경' 을 보면 일본이 보인다_채경혜

22 그 곳에 가면

바다와 어우러진 해운대의 새로운 명소 화랑가

24 우리는 문화 가족

프라임플루트콰이어

25 쉽게 듣는 클래식

고음악연주_곽근수

26 프로그램 가이드

38 새로나온 책

4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안내

42 부산문화회관소식

44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오리지널팀 부산 공연

■ 3월 13일(목) ~ 23일(일) 평일 오후 8:00/토요일 오후 3:00, 8:00/일요일 오후 2:00, 7:0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980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이래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고 있는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오리지널 팀이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부산문화회관에서 역사적인 내한 공연을 갖는다.

화려한 무대와 환상적인 안무로 관객의 눈을 사로잡는 브로드웨이 42번가는 뮤지컬 애호가들이 한번쯤 보고 싶어 하는 가장 대중적인 뮤지컬 작품이다. 1933년 상영된 영화 ‘42번가(42nd Street)’를 무대화한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는 1930년대 대공황기에 브로드웨이의 중

심인 42번가를 배경으로 무명의 뮤지컬 배우가 스타로 탄생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보여준다. 1980년 데이비드 매릭이 뮤지컬로 제작, 1980년 토니상 최우수 작품상과 안무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1980년 이후 브로드웨이에서 만 3,486회 장기공연 기록을 세웠고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호암아트홀에서 초연된 이후 2004년 팝콘하우스에서의 공연까지 흥행불패를 기록해왔다.

브로드웨이 42번가는 2001년에도 새롭게 제작되어 2001년 미국 토니상 8개부분에 노미네이트되어 최우수



리바이벌 작품상, 여우주연상, 드라마 데스크상, 외부비평가협회상 등을 석권하기도 했다.

이번 작품은 초연 당시보다 업그레이드된 작품으로 전작에 비해 훨씬 화려하고



숨막힐 정도로 빠른 템포의 진행과 40여명 댄서들의 탭댄스, 평면무대를 입체적으로 돋보이게 한 무대장치를 선보인다.

뮤지컬 42번가 공연을 보러 간 관객들은 무대 위에서 또 다른 공연 '프리티 레이디'를 만나게 된다.

하나의 공연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데, 오디션을 보러 온 패기 소녀, 연출가 줄리안, 작곡가와 극작가인 버트와 매기, 주연 배우 도로시, 제작자 에브너 외의 여러 코러스 들을 통해 무대 뒷편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이번 공연에는 12명 정도의 투어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13명 정도의 국내 오케스트라 단원 등 최소 25명의 오케스트라가 함께 공연의 음악을 연주, 감동을 더해준다.

뮤지컬 42번가의 첫 장면은 대규모 오디션이 열리고 있는 무대의 뒷편이다.

수십명의 탭댄서들이 뮤지컬 프리티 레이디(Pretty lady) 배역을 얻기 위한 오디션에 열중하고 있다. 프리티 레이디는 브로드웨이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는 연출가 줄리안 마쉬(Julian Marsh)의 최근 작품이다. 대공황에 의해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줄리안은 이번 공연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공연단의 코러스 걸로 참여하게 된 패기는 주인공 도로시의 부상으로 프리티 레이디의 공연이 취소될 위기에서 도로시역을 완벽하게 소화해 내고 공연은 대성공에 이른다. 전형적인

신데렐라의 탄생이지만 현란하고 화려한 무대와 의상, 싱크로나이즈드 댄스, 코인 댄스, 분장실 댄스 등 화려한 댄스와 그 느낌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무대 장치는 브로드웨이에 가지

않고도 그곳의 화려함과 버라이어티함을 그대로 맛보게 해준다.

브로드웨이 42번가의 작곡가 'Harry Warren'은 1922년 'Rose of Rio Grande' 첫 앨범을 내고 1932년 워너 브라더스의 영화 '42번가'의 음악을 맡으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작사가 Al Dubin과 함께 헐리우드에서 워너브라더스, 20세기폭스사, MGM, 파라마운트 등에서 제작한 70여 편의 영화 음악 작업에 참여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연출가 'Mark Bramble'은 'Mack and Mabel' (1974)로 데뷔한 이래 'The Grand Tour' (1979) '42nd Street' 'Barnum' (1980) 'Pieces of Eight' (1985)을 맡았고 2001년 리바이벌된 뮤지컬 42번가의 연출을 맡아 토니상을 수상했다. 안무는 'Rick Conant'가 맡았다.

주요 뮤지컬 넘버로는 1막에 Audition, Young and Healthy, Shadow Waltz, Go Into Your Dance, You're Getting to Be a Habit With Me, Getting Out of Town, Dames, Keep Young & Beautiful, I Only have Eyes For You, We're in the Money, 2막에 Lullaby of Broadway, Getting Out of Town, Montage, About a Quarter to Nine, With Plenty of Money and You, Shuffle Off to Buffalo, 42nd Street가 있다.

입장료 VIP석 120,000원/R석 100,000원/S석 80,000원/A석 60,000원/B석 4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70), AN시티(1644-4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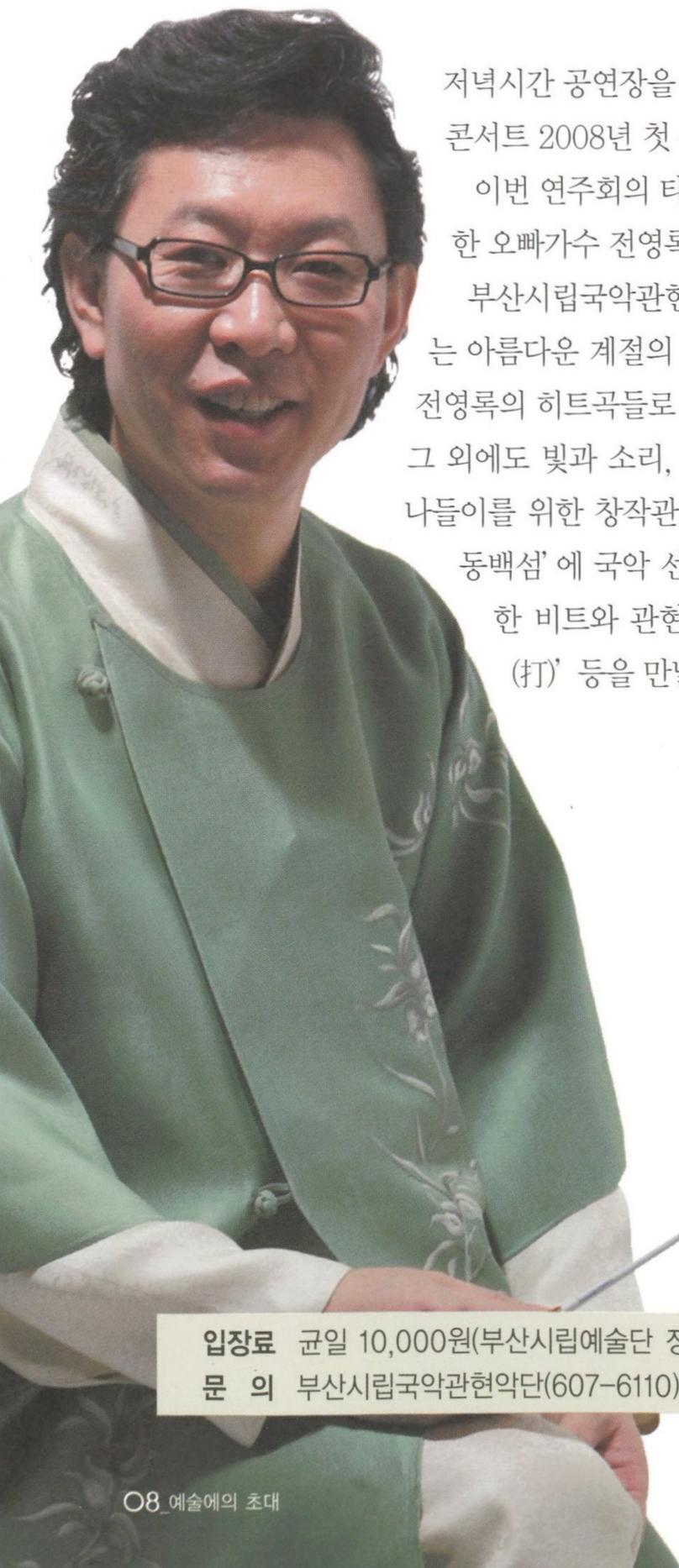
● PREVIEW 1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박호성과 전영록의 11시 종이학 이야기’

- 3월 6일 목요일 오전 11:0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청중들을 위해 선사하는 한낮의 여유,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 콘서트 2008년 첫 무대가 3월 6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펼쳐진다.

이번 연주회의 타이틀은 ‘박호성과 전영록의 11시 종이학 이야기’. 주옥같은 히트곡을 남긴 영원한 오빠가수 전영록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그의 음악인생에 획을 그을 특별한 무대를 갖는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 박호성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의 환희를 담은 창작국악관현악곡들과 애심, 종이학,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등 전영록의 히트곡들로 무대를 꾸민다.

그 외에도 빛과 소리, 그리고 색깔의 계절 봄을 국악관현악과 춤으로 표현한 이준호 곡 봄의 화사한 나들이를 위한 창작관현악 ‘춘광여정(春光旅情)’, 아름다운 동백섬을 노래한 강동래 시인의 ‘추억의 동백섬’에 국악 선율을 입힌 백성기 곡 소리가 있는 창작관현악 ‘추억의 동백섬’, 타악기의 강렬한 비트와 관현악의 섬세한 선율이 어울리는 이경섭 곡 봄을 두드리는 모듬북과 관현악 ‘타(打)’ 등을 만날 수 있다..

| 프로그램 |

- 이준호_ 봄의 화사한 나들이를 위한 창작관현악 ‘춘광여정’ (春光旅情)
특별출연/부산시립무용단(정수민, 오수연, 김주연, 김미란, 김경미)
- 백성기_ 소리가 있는 창작관현악 ‘추억의 동백섬’ (노래/박성희, 정선희)
- 전영록의 종이학 노래이야기_애심, 종이학,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 이경섭_봄을 두드리는 모듬북과 관현악 ‘타(打)’ (모듬북/신문범, 최오성)

입장료 균일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인 4매 20%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PREVIEW 2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7회 정기연주회

- 3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난달 봄의 싱그러움을 담은 신춘음악회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3월에는 라흐마니노프로 봄의 낭만을 선사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휘자 박은성이 지휘하고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감성과 논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피아니스트 김대진이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선택한 3월의 레퍼토리는 20세기 최고의 피아노 협주곡으로 불리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제 2번과 라흐마니노프가 모든 열정을 쏟아 부은 대곡으로 알려진 교향곡 제 2번.

이번 연주회를 지휘하는 지휘자 박은성은 오스트리아 빈 국립대학에서 한국인 최초로 지휘를 전공하여 디플롬을 받고 귀국 후 서울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있으며 국내 주요 교향악단을 지휘했다. 오스트리아, 미국, 체코, 헝가리, 일본 등 국제무대에서도 활발한 지휘 활동을 펼친 그는 1991년 뉴욕 카네기 홀 100주년 기념 초청연주회를 통해 뉴욕 타임즈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2002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평양에서 지휘한 박은성은 2003년 10월 일본 교향악단협회의 초청을 받아 '2003년 아시아 오케스트라 워크'에서 수원시립교향악단을 지휘하기도 했다.

지휘자 박은성은 빈틈없고 치밀한 스타일로 차근차근 곡을 풀어내는 음악적 견실함으로 음악애호가들에게 최고의 감동을 선사한다.

협연자인 피아니스트 김대진은 감성과 논리를 지적으로 조화시켜 단아하면서도 명석한 음색을 들려주는 정상급 연주자이다. 줄리어드 음대 재학 중이던 1985년 클리블랜드에서 개최된 제 6회 로베르 카사드쉬 국제 피아노 콩쿠르(현, 클리블랜드 국제 콩쿠르)에서 영예의 1위에 입상한 김대진은 1987년 미국 머킨홀에서 가진 뉴욕 데뷔 리사이틀에서 '솔리스트가 되기 위한 모든 능력을 갖춘 훌륭한 연주자' (뉴욕타임스)라는 찬사를 받았다.

김대진은 '주간 동아'가 선정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 40대 리더 40인 중 유일하게 음악인으로 선정되었고, 2003년과 2005년 '동아일보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프로들이 뽑은 우리 분야 최고' 설문에서 '국내 최고의 연주가'로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김대진이 연주하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 2번 다단조 작품 18'은 라흐마니노프의 천부적인 서정성이 잘 드러난 곡으로 전곡을 통해 흐르는 낭만적인 가락과 우울한 정서, 깊고 섬세한 악상들은 피아노 특유의 느낌과 기교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곡이다. 이 곡은 1901년 라흐마니노프 자신의 연주로 초연되었다.



지휘자 박은성

| 프로그램 |

라흐마니노프-피아노 협주곡 제2번 다단조 작품18

S.Rachmaninov
Piano Concerto No.2 in c minor op.18

라흐마니노프-교향곡 제2번 마단조 작품27

S.Rachmaninov
Symphony No.2 in e minor op.27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PREVIEW 3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11시에 만나요-계절을 여는 을숙도 봄 콘서트

- 3월 13일 목요일 오전 11:00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저녁시간대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주부, 여성 청중들을 위해 마련한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11시에 만나요’가 3월 13일 오전 11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계절을 여는 을숙도 봄 콘서트’라는 타이틀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올해부터 보다 다양한 관객층을 만나기 위해 기존 부산시립예술단의 주 공연장인 부산문화회관을 벗어나 타 공연장에서 갖는 첫 번째 무대로,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 정우영이 지휘하고 최근 가수로 복귀한 탤런트 정소녀와 칸타빌레 남성앙상블이 시민들과 만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 ‘아라고네이즈-하바네라-전주곡’을 시작으로,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모음곡, 프렌켈의 ‘백학’, 맨지오니 ‘산체스의 아이들’ 등 새 봄에 어울리는 경쾌하면서도 친숙한 곡들을 들려준다.

탤런트 정소녀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그녀의 히트곡인 ‘그사람’, ‘깜빡’ 등을 노래하며, 칸타빌레 남성앙상블이 남성앙상블 특유의 편안하면서도 강렬한 무대를 선사한다. 현직 대학 전임 및 외래교수들로 결성된 칸타빌레 남성앙상블은 1997년 12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아카데미하면서도 대중적인 레퍼토리로 시민들에게 남성중창의 매력을 선사해왔다.



칸타빌레 남성앙상블



지휘 정우영



사회/노래 정소녀

| 프로그램 |

- 비제/ '카르멘' 중 '아라고네이즈-하바네라-전주곡'
- 한/블루스 팩토리 프렌켈/백학
- 한스 짐머/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모음곡 등 수곡
- 지휘/정우영 · 사회, 노래/정소녀
- 중창/칸타빌레 남성앙상블

입장료 무료(선착순 입장으로 조기 만석될 수 있습니다.)
문의 을숙도 문화회관(220-5341),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 PREVIEW 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9회 정기연주회 및 신춘음악회

년버벌 뮤지컬 JUMP와 함께 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JUMP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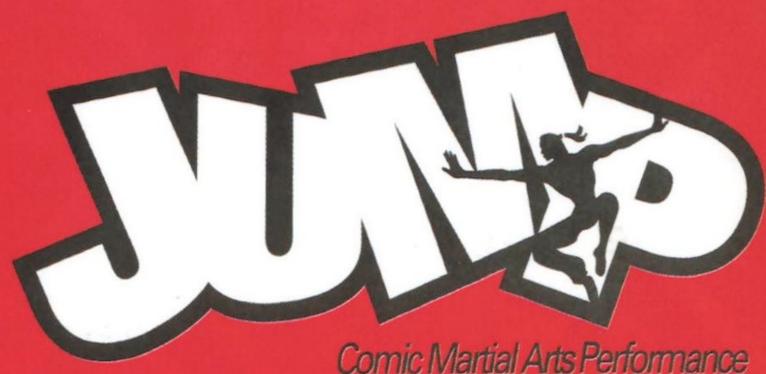
- 3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상큼한 새봄을 맞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3월 27일 새로운 형식의 새로운 무대로 화사한 봄 무대를 연다.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 박호성이 지휘하는 '2008 신춘음악회'는 전통과 현대, 복원된 악기와 개량된 악기, 소리와 관현악, 년버벌 퍼포먼스 뮤지컬과 우리의 정서가 만나는 이색무대이다. 이번 무대를 위해 세계 무대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뮤지컬 점프팀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작한 국악관현악에 맞추어 새롭게 구성된 년버벌 퍼포먼스 뮤지컬 'JUMP 2008'을 공연한다.

2002년 공연 '별난 가족'으로 출발한 점프는 2003년 7월 공연 명칭을 '점프'로 바꾸고 전 세계 곳곳에서 장기 공연을 펼치며 주목받고 있다. 점프는 영국 런던 Hackney Empire Theatre 1,000회 공연을 달성한 것을 비롯 이스라엘 페스티벌 초청 홀론 공연, 중국 북경 아동극장 공연, 일본 오사카 '사천왕사 왔어' 지역축제 이벤트 초청 공연을 가진데 이어 미국 뉴욕 오프브로드웨이 JUMP 전용극장(Union square Theater)을 오픈하기도 했다. 코믹 마살아츠 퍼포먼스 뮤지컬 (Comic Martial Arts Performance Musical)인 'JUMP'로서도 처음으로 만나는 국악관현악단 무대라 기대가 높다.

이 공연 외에도 동적인 리듬과 아름다운 선율에 얽은 부산시립무용단의 화사한 춤, 힘찬 봄의 소리와 영남을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폭 넓게 활동하고 있는 동부민요 명창 박수관의 협연 무대가 함께 펼쳐진다.



| 프로그램 |

- 이경섭-화사한 봄길을 위한 창작관현악 '거리'
- 국악관현악과 년버벌 퍼포먼스 뮤지컬 'JUMP 2008'(구성/박호성) 등 수곡
- 지휘/박호성(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
- 특별출연/JUMP 팀
- 협연/박수관(동부민요)
- 춤/부산시립무용단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이승호

부산음악협회 신임 회장

부산음악협회 회원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 위해 노력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 다니는 시민을 위한 공연 활성화

“부산음악협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기 일처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부산 음악인들의 열정이 꽃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예술고등학교 음악부장으로 그동안 부산의 음악인 재들을 키워온 이승호 씨가 2008년 부산음악협회 회장으로 새로운 음악인생을 시작했다.

지난 1월 5일 열린 부산음악협회 정기총회에서 제 10대 부산음악협회장으로 선출된 이승호(50) 씨는 부산음악계의 변화를 위해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1988년부터 부산예술고등학교에서 후진을 양성해온 이승호 회장은 그동안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이사, 부산음악협회 이사, 부산음악교육연구회 회장 등으로 활동해온 터라 부산음악계의 현실에 밝다. 주변의 권유로 9대 회장선거에 출마해 한표 차이로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에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부산음악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승호 회장은 취임 이후 젊고 능력있는 음악인을 중심으로 협회 임원진과 분과위원장을 새롭게 구성하고 협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새롭게 부산음악협회를 이끌어갈 임원진들의 평균 연령이 40대입니다. 앞으로 부산음악사를 정리하고 부산음악협회의 활성화와 회원의 복지를 위해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대개 원로들이 맡아오던 부회장은 박찬엽(부산시립교향악단 플루트 차석), 이경옥(피아노, 신라대학교 교수) 씨 등이 선출되었고, 이동섭, 서미나, 김성규, 김진연, 홍용신, 신영순, 백진현, 박원철, 송필석, 김창욱 등이 이사진으로 선출되었는데 대부분 40대의 음악인들이다.

보다 젊어진 임원진의 평균 연령을 반영하듯 임원진의 의욕 또한 대단하다. 앞으로 이사회 위주의 밀실 운영에서 탈피해 각 분과 위원장과 전체 회의를 거쳐 예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협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또 음악협회 차원의 대형 국제음악행사가 없었던 것이 안타까웠던 이승호 회장은 올해 조심스럽게 국제적인 음악행사를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부산비엔날레,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연극제, 부산국제해변무용제 등 장르별로 부산을 대표하는 굵직한 행사가 있지만 음악계는 부산시와 음악협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국제적인 음악행사가 없습니다.”

당선 이후 시 담당 부서와 협의해 1,200만원 예산을 확보했고 빠르면 올해 부산피아노음악제가 태동된다.

그 외 이승호 회장이 신경 쓰는 부분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분야. 현재 부산음악협회 회원들이 800여명이지만 그동안 음악협회 회원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다양한 기관,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음악협회 회원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그랜드병원, 보람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등 의료기관과 악기점, 연주장 등이 부산음악협회 협력기관으로 음악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준회원제를 도입해 일반인의 예술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인 준회원의 경우 각종 공연 뿐 아니라 제휴 기업·기관을 이용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음악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부산음악협회 후원회도 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친분을 쌓아온 부산의 기업을 돌며 발품을 팔아 기업 메세나와 업체 후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동아건설 김승훈 회장이 후원회 결성을 흔쾌히 승낙해, 부산음악협회 활성화에 큰 힘을 얻었다.

“지금은 문화의 시대입니다. 문화 정책을 바르게 수립하지 못하면 도시의 발전도 어렵습니다. 부산시민들이 문화 예술이 흐르는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음악회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젊은 사람을 회장으로 선출한 음악협회 회원들의 뜻을 잘 알고 있다’는 이승호 신임 회장.

새봄과 함께 새롭게 선보이는 ‘2008 신춘음악회’로 부산음악협회의 2008년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승호 회장은 어느 때 보다 찬란하게 펼쳐질 2008년의 봄이 기다려진다.

(글/백경옥)

‘봄처녀’와 흥난파

김상훈 · 시인, 민족시가연구소 이사장

입춘(立春)이 지난 지가 보름이 넘었는데도 남도(南都)에서 까지 영하(零下)의 겨울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예년 같으면 벌써 산수유 꽃을 앞장세워 봄꽃들이 다투어 필 때가 되었건만 올해의 봄은 절룩거리는 소리를 내며 좀처럼 성큼 다가 오지를 않고 있다.

그나저나 2월 19일이 우수(雨水)이고 보면 머지 않아 반도(半島)의 봄은 백화난만(百花爛漫)한 꽃잔치로 화사(華奢)하게 술렁이게 될 것이다.

봄을 소재로 한 시나 노래는 어느 계절보다 많다.

‘봄이 오면’이란 파인 김동환의 詩에, 김동진과 이홍렬이 각각 작곡한 노래는 너무나 널리 애창되고 있고 작년 이맘 때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에서 소개한 바 있다.

따라서 박재삼 작시 김연준 작곡의 ‘봄의 유혹’, 고진숙 작시 김연준 작곡의 ‘봄을 기다리는 마음’, 김안서 작시 박태준 작곡의 ‘봄바람’ 등도 있으나 이번엔 이은상 작시 흥난파 작곡의 ‘봄처녀’를 소개하고자 한다.

봄 처녀 제 오 시네
새 풀웃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너울쓰고
진주이슬 신으셨네
꽃 다발 가슴에 안고
뉘를 찾아 오시는 고

님찾아 가는 길에
내 집앞을 지나시나



이상도 하오시다
 행여 내게 오십인가
 미안코 어리석은 양
 나가 물어 불가나

자신을 찾아줄 님을 봄치녀로 의인화해서 쓴 간절한 열모(熱慕)의 시라고 하겠다.

노산 이은상은 우리나라 현대 문학 100년사에 길이 기록될 대(大)문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시와 시조는 물론 수필, 금석문에 이르기까지 왕성한 창작활동으로 높은 경지의 문학세계를 구축해 온 대가(大家)이다.

1918년 아버지가 세운 마산창신학교 고등과를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다니다가 1925년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사학과에서 공부했다. 일본에 잠시 머물며 <신생>의 편집일을 도우다 귀국, 1931년~32년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를 지낸 뒤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근무했으며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되어 구금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났고 1945년에는 사상범 예비검속으로 광양경찰서에 갇혀 있다가 8·15해방으로 풀려났다.

같은해 <호남신문사> 사장을 지냈고, 1950년 이후 청구대학(지금 영남대학교),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1954년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 되고, 1959년부터 충무공 이순신장군 기념사업회, 안중근 의사 송모회장 등을 맡아서 활약했다. 노산은 문인으로, 교수로, 각종 기념회의 회장으로 폭넓은 사회활동을 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뜻 깊었던 활약은 우리겨레 고유(固有)의 전통(傳統) 시가(詩歌)인 시조 부흥운동, 시조 현대화 운동에 앞장선 일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탈국경, 초지 리의 무국경(Bord less)시대 무벽문화(Wall less culture)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지구촌이 하나의 경쟁장이 된 곳에서 생존하고 발전해야 할 운명에 있다. 이 고경쟁(高競爭)에서 낙오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 최선두, 초일류, 초고속의 역량을 배양 확보해야 하지만 우

리만의 독창성, 특수성, 개별성도 확보해야 한다. 우리 민족 고유의 시조문학은 그에 합당한 훌륭한 자산(資產)이 된다고 하겠다.

노산의 시조는 작곡된 것만도 수십 수가 넘는다

<가고파> <성불사> <옛 동산에 올라> <고향생각> 등 명시, 명곡들이 즐비하다. 필명은 남천(南川), 두우성(斗牛星), 호는 노산(鷺山) 외에 강상유인(江上遊人) 노산학인(鷺山學人)으로 쓰고 있다.

한편 작곡가 홍난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음악가의 한사람이다. 초기에 그는 <고향의 봄> <봉선화> 등 일제에 항거하는 시에다 망국의 슬픈 애조(哀調)가 짙게 깔려있는 명곡들을 많이 작곡함으로써 봉선화=홍난파=민족음악가로 널리 알려졌다. 1949년 4월 도쿄 히비야 공화당에서 개최한 전 일본신인음악회에서 무사시노 음악학교를 졸업한 소프라노 김천애가 하얀 치마저고리를 입고 출연하여 <봉선화>를 열창, 관중들의 열렬한 환호와 감동의 벅찬 눈물을 자아내게 했던 일은 너무나 유명하다.

그러나 그의 화려했던 음악활동은 일제가 3·1운동 후 내세운 이른바 '민족음악개량운동'에 동조함으로써 '친일음악운동'으로 급격하게 변모하기에 이른다.

한국의 대표적인 음악인이 조국과 민족을 외면하고 친일행각을 벌였다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아무리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면죄(免罪)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문학인 중에서도 <북청물장수> <국경의 밤> <송화강 뱃노래> 등 많은 애국시와 저항시를 남겼던 파인 김동환 시인도 말년의 변절(變節)로 친일 문학인으로 매도되고 있으니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온갖 부침(浮沈)과 기멸(起滅)을 반복하는 역사의 물결 속에서 많은 예술인들이 여울밑 조약돌처럼 잠 못 자는 신고(辛苦)와 통민(痛憫)을 겪는데도 지나치게 경멸, 매도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 소망해 본다.

예술과 자유를 사랑하는 보헤미안의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체코

이승주 · 오스트리아 통신원

몇 년전 드라마에 대한 반응으로 체코를 모르는 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체코는 여행객들이, 문학가들이 그리고 음악가들이 꿈꾸는 꿈의 도시이기도 하며, 또한 이곳은 그에 부흥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예부터도 이곳은 보헤미안의 도시로, 그리고 유럽의 음악학원으로 불리울 만큼 예술과 자유를 사랑하는 도시이다. 체코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와 역사적 유산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예술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계대전 당시 체코는 전쟁을 할 경우 손실 될 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눈물을 머금고 싸워보지도 않은 채 항복을 한 것이다. 때문에 그들이 치뤄야 하는 고통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지만 그들의 피눈물로 인해 지금의 체코가 있고 우리 또한 그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눈물어린 노력으로 이루어진 이곳,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 체코. 요즘 이곳은 또 다른 이유로 더욱 매력적인 곳이다. (너무 주관적 관점이라 할 지 모르지만 외국에 나가보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체코를 찾을 때면 대형무대에서 우리연주자들의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다. 작년 하반기 이곳에서 만난 문화외교관인 두 젊은 연주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만난 이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정윤이다. 요즘 그녀의 하루하루가 매우 바쁘다.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여느 대학생과 달라보이지 않는 생활인 듯 하면서도 연주자로서의 그녀의 모습은 또 다르게 다가온다. 그녀는 수많은 청중이 자신만을 보는 무대위에 당당히 올라서서 현을 켜기 위해 오늘도 힘차게 발돋움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녀의 소식을 국내보다는 유럽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유럽 무대에서 아직은 학생신분인 그녀가 자주 초청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유럽을

무대로 그리고 세계 무대로 도전하는 그녀의 날로 발전하는 연주력을 통해서 그녀는 한국의 문화 알림이 역할까지 겸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체코 즐린스키주(州)에 있는 도시 Zlin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양정윤을 만날 수 있었다. 체코를 대표하는 인형극의 연구 중심지이자 산업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Zlin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양정윤은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였다.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베토벤, 브람스 그리고 멘델스존과 더불어 4대 바이올린 협주곡이라 불리워지고 있다. 누가 그렇게



베를린 국립음대에 재학중인 양정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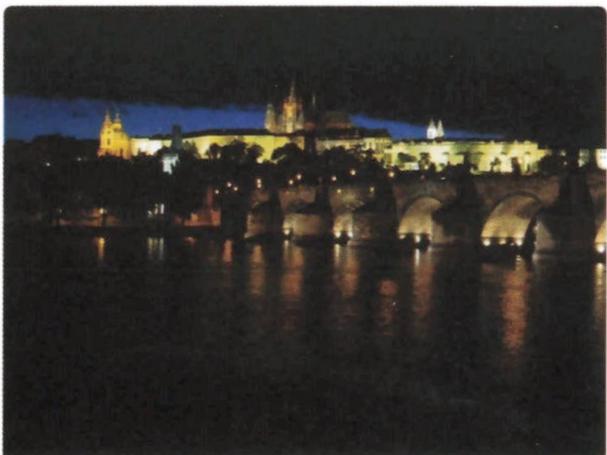
정의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협주곡 중의 협주곡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 중 특히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그 화려함과 애절한 멜로디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다. 현재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지만 작곡되었을 당시에는 음악가들에게 외면당하고 평론가들에게 심한 혹평을 감수해야만 했던 곡이다. 차이코프스키는 이곡을 당시 러시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레오폴드 아우어 교수에게 헌정할 목적으로 그에게 초연을 부탁하였지만, 그의 대답은 뜻밖에도 차가운 거절이었다. 이유는 이곡이 '기교적으로 도저히 연주 불가능하다' 는 이유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신예들은 그들의 테크닉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으니 세월이 신기할 따름이다. 그 정도로 이 곡은 테크닉 면에서도 고난도 기교를 요하는 난곡이다.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강렬한 러시아적인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1악장의 야성적인 주제나 2악장의 슬라브적 애수가 어린 선율, 3악장의 공포한 리듬과 열정적인 모습은 지극히도 러시아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데, 이 곡을 바이올리니스트 양정윤은 너무도 멋지게 소화 했을 뿐 아니라 기교와 함께 내면의 표현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연주자로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바이올리니스트 양정윤은 이곡을 지난 12월에 있었던 오스트리아의 Gaenserndorf 에서도 연주하였다. 이날의 연주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양정윤의 화려한 기교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서로 함께 음악이야기를 하듯 주고 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곳을 통해 열린 연주회는 1년에 2회 이루어지는 시의 커다란 연주회라고 한다. 항상 연주회장을 즐겨찾는 그들이지만 특별한 날만큼 그날의 객석은 가득 채워졌다. 삶과 함께한 클래식 음악들이기에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연주를 대하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 만큼은 날카롭게 지적할 줄 아는 이들도. 그러하기에 바이올리니스트 양정윤은 이번 무대에 앞서 조금은 떨림과 설렘으로 무대에 섰으리라. 앞선 걱정을 했지만 이런 생각은 지나친 우려에 지나지 않았음을 오래 지나지 않아 알 수 있었다. 연주가 시작되자 침착한 모습으로 연주를 이끌어 가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조금씩 조금씩 연주회장을 가득 채운 청중들은 그녀가 들려주는 음악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고 말았다.

양정윤은 예원학교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로 입학하였으며, 현재 베를린 국립음대에 재학중이다. 또한 2005년 스위스 시옹 국제 음악 페스티벌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1위와 청중상을 차지하면서 우리에게 그녀를 각인시켜주었다. 국내보다는 유럽을 먼저 바탕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 그녀의 조금씩 성숙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즐겁기만 하다. 그녀가 2008년에 들려줄 음악이야기에 귀기울여 본다.



양정윤은 2005년 스위스 시옹국제음악페스티벌에서 1위와 청중상을 차지했다.



또 다른 한명의 문화외교관은 피아니스트 김혜진이다. 작은 체구와 귀여운 미소를 지녔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무대에서의 집중력과 카리스마가 인상적인 피아니스트 김혜진. 그녀를 다시 만난 곳은 체코의 Pilsen이었다. 이곳은 체코 프라하에서 버스로 한시간 거리를 달려가면 닿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이곳은 체코의 맥주로 아주 유명한 플젠스키 프라즈드로이(Plzenski Plazdroj), 필스너 우르쿠엘(Pilsner Urquell)의 원산지이다. 체코의 대표맥주라 함은 이곳 이외에도 남부도시 체스키 부데요비체(Ceske Budejovice)의 부드바(Budwa)이다.

필젠의 매력은 맥주에 그치지 않는다. 체코에서 가장 높은 높이 103m의 첨탑을 이고 있는 성 바르톨로메이 교회(St. Bartholomew's Church)와 교회 앞에 펼쳐진 광대한 공화국 광장은 도시의 분위기를

기를 한결 고풍스럽게 전해주는 유서깊은 곳이다. 이곳에서 피아니스트 김혜진은 슈만의 피아노 콘체르토를 연주하였다. 피아니스트 김혜진이 이번 연주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그리고 지휘자와의 호흡이었다고 한다.

“오케스트라 단원과 지휘자 모두가 너무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같이 호흡을 맞출 때도 가족적인 분위기여서 제가 편한 마음으로 연주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번 연주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날 그녀가 연주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은 슈만이 유일하게 남긴 피아노협주곡이며, 곡의 전개가 상당히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대단한 난곡이다. 또한 그러기에 조금만 실수해도 산만한 연주가 되기 쉬운 곡이기도 하다. 그래서 흔히들 이 곡에는 슈만의 냉정과 열정이 동시에 필요하다고들 한다. 그녀는 관현악과 피아노 선율의 열정적인 서주로 음악의 문을 열었고, 이어지는 오보에가 쓸쓸함을 자아냈다. 때로는 격력하게 때로는 서정적인 쓸쓸함으로 반복하며 마지막 악장의 강렬한 독주부분에서는 모든 청중과 그리고 조명조차도 모두 숨을 죽일만큼 곡을 멋지게 이끌어냈다.

“슈만 콘체르토는 제가 좋아하는 곡들 중 하나입니다. 슈만 특유의 개성과 놀라울만큼의 천재성이 다른 솔로 피스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람의 감정을 뚫어오르게 만드는 화성진행이나 선율들을 보면 슈만의 위대함을 또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활기차고 정열적인 가운데 보이는 쓸쓸함 같은 그런 이중성을 관객에게 함께 전달하고 싶었어요.”

연주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는 모든 경험이 피아니스트 김혜진에게는 음악의 길로 가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 그 길이 성공의 길이 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좋을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는 김혜진. 한해 한해가 지나면서 변화하고 성숙해져 가는 그녀의 피아노 소리가 반갑다. 2008년에도 그녀의 연주를 더 많은 곳에서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녀의 길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무대에서 집중력과 카리스마가 인상적인 피아니스트 김혜진.



포르투갈

숙명의 바다, 그 운명을 노래하는 음악 파두(Fado)

황윤기 · 음악칼럼니스트

유럽 대륙의 서쪽 끝에서 대서양을 바라보고 있는 나라 포르투갈. 지중해, 북서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지리조건 때문에 로마의 속주 국가이기도 했고,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아랍의 지배를 받기도 했다. 한 때 스페인과 함께 해양대국으로 명성을 떨치며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면적이 큰 나라인 브라질을 비롯해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을 식민 지배하기도 했었지만 포르투갈의 영화(榮華)는 그리 오랜 역사 동안 이어지지 못했다. 20세기에 들어서서도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으로 인해 서민들은 늘 그늘진 삶 속에 살아야만 했다. 또한 해양 강국 시절 새로운 세계로의 진출로였던 바다는 삶의 동반자이자 동경의 대상으로 포르투갈 사람들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존재였다. 스페인의 플라멩코(flamenco)와 함께 이베리아 반도의 대표적인 음악으로 관심을 받아 온 포르투갈의 음악 파두(fado)는 이러한 역사와 환경 속에서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쌓인 한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파두의 기원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며, 그것들은 대부분 역사를 통해 드러난 것들이다. 이와 관련된 포르투갈의 역사는 8세기에서 12세기에 걸친 무어인의 지배와 15세기에 본격적으로 바다로 진출하기 시작했던 시기, 즉 대항해 시대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무어인의 지배를 받는 동안, 아랍적인 숙명관이 담긴 그들의 노래로부터 파두가 기원했다는 설은 파두가 지닌 어두운 내면의 표현과 무관하지 않다. 파두에서 나타나는 어둡고 경건한 분위기, 그리고 한 음을 길게 늘이면서 꺾는 창법 등이 모두 아랍의 영향을 받은 흔적들이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무어인의 지배를 받았던 스페인의 음악에도 이러한 아랍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바다를 통해 신대륙을 개척해 나갔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파두의 기원설은 좀 더 구체적이다. 1800년 전후에 브라질에서 유행했던 도시풍의 감상적인 노래 '모디냐(modinha)'와 아프리카의 '룬둠(lundum)'이라는 노래가 긴 항해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의해 전해져 파두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

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수많은 포르투갈의 남자들이 아프리카와 신대륙으로 길고 긴 항해를 했다는 점이다. 그 뒤에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남아 있는 사람들(여인)의 기나긴 기다림과 아픔들이 따르게 되고, 떠나가 있는 이들은 조국에 대한 향수와 길고 긴 고독감을 이겨내야만 했을 것이다. 이때부터 포르투갈인들에게 바다는 삶이자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파두라는 단어가 운명, 숙명을 뜻하는 '파툼(Fatum)'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도 포르투갈인들과 바다와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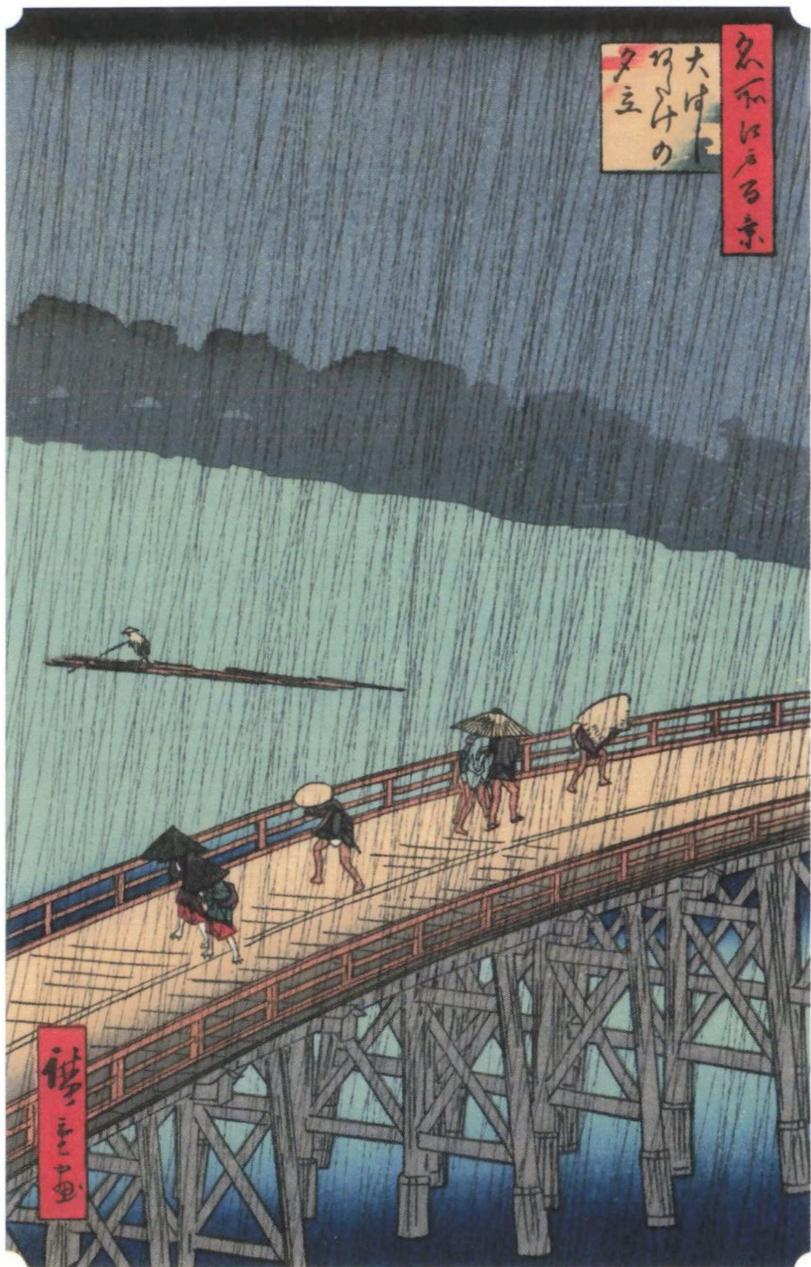
이처럼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운명론적인 인생관을 지닌 파두의 근간에는 '사우다드(Saudade)'라고 하는 포르투갈 사람들 특유의 정서가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다. '사우다드'는 흔히 그리움, 향수, 또는 강렬한 갈망 등으로 풀이되기도 하지만, 단순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 아니다. 그 속에는 바다를 숙명처럼 여기고 살아온 포르투갈 사람들의 희로애락(喜怒哀樂)과 내면에 깃들여 있는 어두운 감정이 총체적으로 담겨 있다. 파두 가수들은 이 '사우다드'를 감정의 밑바닥으로부터 끌어올려 토해내듯이 노래로 표현한다. 청중들 역시 이 파두 특유의 정서를 함께 공감하는 것이다.

삶의 슬픔과 우울함, 그리고 포르투갈 사람들의 내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형언하기 힘든 한(恨)의 정서를 격렬한 감정으로 표현하는 음악, 파두. 바다를 숙명처럼 여기고 살아온 그들의 역사와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그 고유한 멋과 향기는 오랜 세월 동안 세계인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우리 또한 굴곡진 역사를 통해 한(恨)의 정서를 지닌 민족이고 삼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이다. 세계 각지의 수많은 음악들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 가장 잘 통하는 음악 중의 하나가 바로 파두일 것이다.

3월호부터 음악칼럼니스트 황윤기와 함께 월드뮤직 여행을 떠납니다. 글쓴이 황윤기는 국악방송 '황윤기의 세계음악여행' 진행자, KBS 1FM '세상의 모든 음악' 출연 외 월드뮤직 관련 라디오 방송 출연 및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히로시게의 '에도백경'을 보면 일본이 보인다

채경혜 · 한국판화예술연구원 대표



명소에도백경 중 '오하시와 아타게의 천둥'

우키요에(浮世繪)는 18세기 일본, 에도(江戸)시대 초기부터 메이지시대 초기까지 약 200년간 에도를 중심으로 한 서민의 풍속 및 생활, 자연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민화풍의 그림'을 말한다.

육필화로 시작되어 수백 명의 작가들이 활동하였으며, 1765년 다색 목판화가 나오면서 황금기를 이루게 되며, 목판 인쇄술의 발달로 과거의 서적삽화 역할에서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품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우키요에 판

화는 인물을 중시하는 대담한 구도와 평면성 등으로 강렬한 색채, 섬세한 묘사를 중시하는 일본미술의 표현주의적 측면을 잘 보여주었다. 그림을 그리고, 목판에 새겨, 색을 칠해 찍어내는 3단계 작업이 상인자본 아래 분업화되었고, 한 작품 당 약 200~300장씩을 찍었다고 한다.

초기의 서민풍속화는 말기에 이룰수록 유흥가 풍속에 치우치면서 기녀, 가부키(歌舞伎) 배우 등의 요염한 초상화가 지금의 연예인 브로마이드처럼 성행하는 등 '우키요에'가 범람하자 막부는 체제 비판, 유행, 춘화첩(春畵帖) 발간 등의 고급 인쇄를 법으로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에도에서 행해진 제례의 조선통신사행렬을 판화로 만들기도 했다. 오키무라 마사노부의 판화 '초센진 우키요에(朝鮮人浮世繪)'는 하네가와 토우에이의 '조선인내조도(朝鮮人來朝圖)'로 이어져 통신사를 대표하는 그림의 바탕이 된다. 쓰시마섬을 통해 에도에 체류했던 조선통신사들이 시중의 우키요에 판화를 기념품으로 구입하지 않았을까 추정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히로시게(歌川廣重)가 펼친 꿈과 동경의 세계!

18세기 후반에 들어 우키요에 판화는 인물화 뿐 아니라 풍경화로 더욱 성장하는데 특히 호쿠사이(北齋)와 히로시게(廣重)가 우수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호쿠사이가 최초로 풍경화 분야를 개척하고 합리적 풍경화를 나타냈다면, 우타가와 히로시게(1797~1858)는 일본의 자연미와 나그네의 정취를 서정적으로 즐겨 그렸으며 우키요에 풍경화는 히로시게에 의해 일본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히로시게는 에도에서 도쿠가와 막부의 사무라이 계급으로 태어났으며 집안 대대로 낮은 계급인 소방조(消防組) 자리를 세습하였다. 부모를 일찍 여위고 15세부터 17

년간 '우타가와 도요히로'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스승이 사망한 1828년까지 배우와 미인을 주제로 한 판화만을 제작하였다. 아마도 풍경을 주로 했던 스승에 대한 예우 차원이 아니었나 짐작된다. 스승이 죽은 후 1831년 33세에 10장짜리 연작 '동도명소(東都名所)'를 발표하면서 서정적인 풍경 판화가로서의 첫발을 내딛고 수년 뒤 걸작 '기소가와도 69역참(木曾歌道 69驛站)'을 완성하였다.

1832년 막부로부터 왕실에 말을 진상하는 행사요원으로 선발되어 고향 에도에서 교토까지 여행할 기회를 갖자 여정에서 느낀 감동과 풍광을 스케치하여 '도카이도 53역참(東海道 53驛站)'을 제작하였다. 이 연작은 일본인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으로 시인과 같은 섬세한 감성이 나그네의 눈으로 바라본 교외의 풍경으로 재현되어 히로시게의 출세작이 되었다. '도카이도 역참'이란 에도의 니혼바시에서 서쪽으로 바다를 끼고 교토에 이르는 동해도(東海道)를 따라 막부가 심복들에게 하사한 주변 영지에 설치한 교통요충지를 말한다. '도카이도 53역참'은 우리나라에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현재 일본관에서 소장품전으로 전시되고 있다.

예순 살이 되던 1856년, 만년의 대작 '명소에도백경(名所江戸百景)'을 착수하여 히로시게 화업의 집대성을 이루게 되는데, 우키요에 사상 가장 야심찬 기획으로 도쿄 지역의 명승지 100여 곳의 풍경을 21년동안 118점의 판화에 담았다. 역동적인 구성으로 봄의 매화나무, 여름 소나기, 보름달이 뜬 가을밤의 경치, 겨울 설경 속의 나무 등을 주 테마로 하여 사계의 다채로운 표정이 정교하게 묘사되었으며 특유의 과감한 구성과 섬세한 필치로 당시의 풍속·생활상까지도 고스란히 담았다.

수년 전, 우키요에 판화를 약 1,200여점을 소장하고 있는 도카이도의 '히로시게 미술관'을 찾아 그의 대표작 '쇼노(庄野)' 앞에 서서 그림 속에 한참 빠져든 적이 있었다. 급히 도롱이를 쓴 사람들이 세찬 장대비를 피해 우왕좌왕하는 모습 뒤로 여러 겹 대나무 숲에 아스라이 초가집이 잠겨있고, 밝은 남색의 청신한 길과 대숲의 명암대



기소가와도의 69역참 중 '세바(先馬)'



도카이도 53역참 중 '쇼노(庄野)'

비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찍는 세트장을 연출해 놓은 듯 생생한 감동을 주었다.

회화 속 기운생동과 지성적 향기를 중요시하던 한국과 중국이 외면하였던 판화 그림이 새로운 회화에 목말라 했던 서구 인상파 화가들을 매료시켰던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니었다. 고희는 거의 표절에 가까운 그림을 그렸는데 그의 '꽃이 핀 자두나무'와 '비오는 다리'는 히로시게의 목판화와 흡사하며, '명소에도백경' 중 '오하시와 아타게의 천둥'은 폴 세잔느에게 남다른 감동을 준 작품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히로시게는 1858년 62세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한다.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서 "동로(東路)에 붓을 놓고 나그네의 하늘, 서방의 명소를 바라보네."라고 재담을 던졌다. 평생을 나그네처럼 살며 자연풍광에 심취한 화가답게 죽어서라도 서방정토(西方淨土)를 여행하기를 원했던 것일까?



바다와 어우러진 해운대의 새로운 명소

최근 들어 해운대에 대형화랑과 전문화랑이 잇달아 문을 열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바다와 어우러진 해운대의 새로운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해운대 지역 화랑가를 둘러 본다.

우선 한국의 '몽마르트르' 달맞이고개에 새로운 문화공간인 '숨갤러리'가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다. '힘든 오르막길을 오른 후 그 언덕에서 크게 한번 내쉬는 숨처럼 바쁜 일상 속에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유로 다가가겠다'는 의미의 숨갤러리(관장 전연숙)는 해운대의 아름다운 풍광이 내려다보이는 전시 공간 뿐 아니라 소규모 음악회를 열 수 있는 클럽하우스 등을 갖추고 다양한 기획전과 테마공연을 가져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관전 '언덕위에서 숨을 쉬다' 전으로 시민들과 첫 만남을 가진 숨갤러리는 일본 팝 아트의 대표적인 작가 아오이 쿠사마와 한국의 젊은 작가 17명이 함께하는 'Three Boxes' 전을 3월 19일까지 갖는다.

(☎ 644-1001, soomgallery.com)

전국 규모의 전시, 경매 전문 화랑인 코리아아트갤러리도 지난해 6월 달맞이고개에 새 둥지를 틀었다. 지난

1999년 부산갤러리로 개관한 이래 다양한 전시와 정기적인 미술 경매, 아트매거진 발간 등으로 지역미술 발전에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코리아아트갤러리는 지난 2월 코리아아트센터 그랜드를 오픈하면서, 문화공연장과 레스토랑, 와인바를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 742-7799, www.kacompany.net)

전시와 유통기능을 결합한 또다른 전시문화공간인 아르바자르도 지난해 해운대구 장산지하철역 인근에 문을 열었다. '아트마켓'을 뜻하는 '아르바자르'는 상설 기획전시관과 관람객을 위한 휴식공간, 작품구매 상담실, 북카페 및 아트숍, 작품전문 액자점 등 작품감상에서 소장 에 이르는 모든 편의시설이 들어선 원스톱 미술문화 테마공간이다. 특히 아르바자르는 젊고 유망한 작가를 발굴, 육성하는 기획전 zone을 비롯해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장식한 대표적인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근·현대특별전 zone, 전통적인 고미술의 멋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고미술 특별전 zone 등 색선별로 나뉜 다양한 미술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 704-0151, www.arbazaar.com)

1983년 서울 인사동에서 시작한 가나아트갤러리는 지난해 7월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노보텔 앰버서더 부산호텔 4층에 가나아트 부산점을 개관했다. 150여 평의 전시공간과 작가들의 창작 공간인 부산 아뜰리에를 운영하는 가나아트 부산점은 다양한 기획전 뿐만 아니라 작은 음악회, 교양강좌 같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 작가 발굴을 통한 지역문화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가나아트 부산점에서는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현대 조각계의 거장 조엘 샤피(Joel Shapiro)의 작품을 서울 전시회에 이어 부산시민들에게 선보인다.

(☎744-2020, www.ganaar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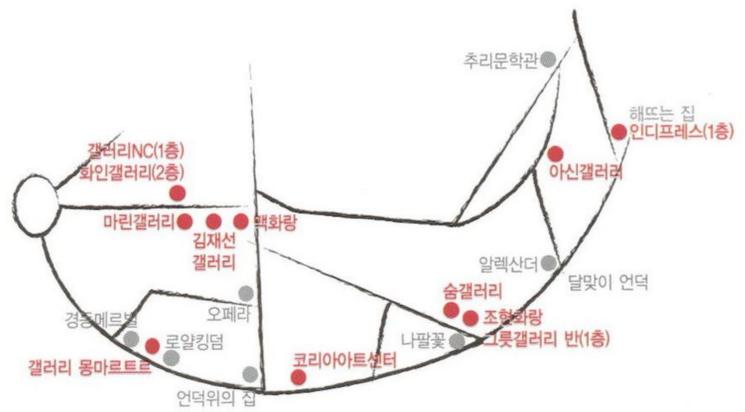


지난해 12월 해운대구청 인근에 문을 연 고은(古隱)사진미술관은 고은문화재단(이사장 김형수)이 설립한 부산 최초의 사진전문미술관이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 등 총 200여평이 넘는 전시공간을 갖춘 고은사진미술관은 특히 지하 1층과 주 전시실인 2층 전시관은 산소발생기가 설치되어 있어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고은사진미술관은 앞으로 국내외 수준높은 전시 기획과 함께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신진 작가를 발굴, 지원하며 사진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학술세미나를 펼칠 예정이다. 개관기념전으로 작가 구본창의 작품을 선보였고 두 번째 기획전으로 사진작가 최민식 초대전을 3월 30일까지 갖는다.

(☎ 744-3924, www.goeunmuseum.org)

공예, 회화, 조각을 아우르는 복합미술공간인 산목미술관(관장 김성혜)도 지난해 11월 7일 해운대구 좌동 수영세무소 옆에 문을 열었다. 경성대학교 공예디자인과 권상인 교수가 일본 오사카의 대표적인 화랑인 야마키화랑과 손을 잡고 개관한 산목미술관은 1층은 도예작업실로, 2, 3층은 갤러리로 사용되고 있다. 개관기념전으로 일본 야마키화랑 전속작가 5인 초대전을 가진 바 있는 산목미술관은 가스타보 페레즈(멕시코), 안토니오 곤잘레스(스페인), 마사유키 쓰보타, 노부히코 스즈키, 사이토 오사무



(일본), 김영성(한국)의 작품을 소개하는 6인 초대전을 3월 9일까지 갖는다.

(☎ 747-0970, blog.daum.net/sanmokgallery)

이밖에도 해운대에는 부산시립미술관과 부산디자인센터를 비롯해 달맞이 고개에 수년간 자리를 지켜온 김재선 갤러리, 마린갤러리와 최장호갤러리, 맥화랑, 갤러리 화인, NC갤러리, 갤러리 몽마르트르, 조현화랑, 피카소화랑, 공간화랑 해운대점 등이 밀집해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글/정복엽〉

플루트 합주가 빛어내는 풍부한 앙상블의 매력 **프라임플루트콰이어**



경쾌하면서도 부드러운, 아름다운 음색을 자랑하는 악기 플루트. 플루트는 연주자의 호흡으로 소리를 내는, 그래서 악기 중에서도 가장 사람의 목소리와 닮은 악기이다.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선율의 독주악기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최근에는 3 옥타브의 풍부한 선율로 들려주는 앙상블 무대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 2004년 결성한 프라임플루트콰이어는 이런 플루트앙상블의 매력을 전하기 위해 매년 연주무대를 가져오고 있는 아마추어 연주단체이다.

“단선율 악기들이 모여 빛어내는 아름다운 화음과 더불어 독주곡이 갖는 한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플루트 음악을 들려주고 싶었다”는 프라임플루트콰이어 지휘자 겸 음악감독 김정민 씨. 부산튜티앙상블 리더, (사)인코리언심포니오케스트라 플루트 수석으로 있는 플루티스트 김정민 씨를 주축으로 결성된 프라임플루트콰이어는 현재 40여 명의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결성되던 그해 12월 금정문화회관에서 창단연주회를 가진 프라임플루트콰이어는 매년 한차례 정기연주회를 가져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2월 16일 금정문화회관에서 4번째 정기연주회를 펼쳤는데, 우리에게 친숙한 연주곡으로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아마추어 연주자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개별 연습에 치

중하게 된다는 프라임플루트콰이어는 정기연주회를 석달 정도 앞두고는 본격적인 앙상블 연습에 들어간다.

“기량이 서로 다른 3, 40명의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같은 악기로 소리를 맞추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지만 연습을 통해 원하는 화음이 나올 때 가장 보람이 크다”는 김정민 씨는 바쁜 와중에도 연습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团员들의 열정에 큰 힘을 얻는다.

프라임플루트콰이어는 올해부터 실력향상을 위해 주 1회 정기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결성되고 지금까지는 정기무대에 치중하면서 외부공연을 지양했지만 올해부터는 활동의 폭을 넓혀 외부 초청공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시민들에게 플루트 선율의 매력을 전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플루트를 배우기 시작해 2월 정기연주회에서 처음 무대에 섰다는 배혜현 씨. “저음의 부드러운 소리와 고음의 청아하고 맑은 소리를 음역을 넘나들며 연주할 수 있다는 게 플루트가 가진 매력”이라는 그는 “연주회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지만 모두가 최선을 다해 한 곡 한 곡 완성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크다”며 연주회에 온 관객들과 음악의 즐거움을 함께 느끼고 싶다고.

문화센터에서 플루트를 수강하면서 프라임플루트콰이어와 인연을 맺게 됐다는 김진미 씨는 2006년부터 정기연주회 무대에 서오고 있다. “무대에 설 때마다 실수하지 않을까 긴장되지만 아름다운 플루트 선율을 관객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기대에 매번 설렌다”는 그는 동호회 활동에서 생활의 활력을 얻는다고 한다.

‘골로드 볼링’의 음반을 접하고 플루트 선율에 반했다는 박정옥 씨. 플루트를 시작한지 3년 정도 되었다는 그는 프라임플루트콰이어 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무엇보다 좋았다며 앞으로 더 자주 모여서 연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 문의/프라임플루트콰이어 김정민(011-858-5226)

〈글/정복엽〉

고음악 연주(Authentic Music)

곽근수 ·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자

클라리넷은 프랑스에서 사용된 샬뤼모(chalumeau)를 모체로 개량한 것인데,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된 것은 라이프치히 출신의 악기 제작자인 요한 덴너(Johann Christoph Denner, 1655-1707)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드럽고 우아한 음색을 자랑하는 플루트(Flute)도 현재의 모습으로 개량된 것은 1832년으로 테오발트 뵘(Theobald Boehm, 1794~1881)의 발명 덕분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서양 악기들이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된 시기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작곡된 작품들은 현재와 같은 악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고음악 연주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태어났다. 17세기의 음악은 17세기의 악기로, 18세기의 음악은 18세기의 악기로 연주한다는 것이 고음악 연주의 이상(理想)인 것이다.

예술 작품이 한 시대의 미학적 상황이나 사회상의 반영이라고 한다면 연주해석도 여기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 고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비록 동일한 작품에 대한 해석이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공감대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연주해석의 필수적 요건으로서 그 작품이 창조된 시간적, 시대적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음악 연주자들은 이러한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옛 악기들을 복원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원전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옛 주법을 재현시켜 이를 연주에 도입함으로써 작품의 오리지널리티 복원에 충실을 다하고 있다.

고음악 연주의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신선한 충격으로 감상자에게 다가오게 되며, 이러한 연주법, 악기, 해석은 현대 연주 세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고음악 연주의 출현은 어쩌면 당연한 시대적 요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만큼 현대의 연주 내용이 몰 개성화되어 왔던 것이 그간의 사정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새로운 스타일이 음반을 통해서 등장하자 폭발

적인 인기를 모으게 되었고, 그것은 새로운 고음악 그룹들을 탄생시키는 촉매가 되었다. 고음악 연주의 세계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주로 실내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이 스타일은 건반 악기, 성악, 타악기 등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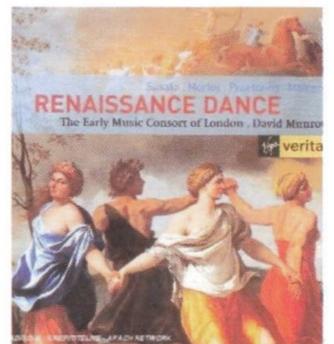
고음악 연주의 기수들

▶ 데이빗 먼로우(David Munrow)

1942년, 영국 버밍엄(Birmingham)에서 출생하여 1976년, 체삼보이스에서 사망했다. 킹 에드워드 학교를 졸업한 뒤 18세 때 남미의 페루로 건너가 민속음악과 민속악기를 연구했다. 귀국 후, 1961년부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국어학을 연구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고악기 그룹을 조직하고 본격적인 연주활동을 펼치는 한편 버밍엄 대학에서 고음악을 연구하게 된다. 1969년부터 런던 왕립 음악원에서 강의했고, 1967년엔 크리스토프 호그우드(Christopher Hogwood) 등과



데이빗 먼로우



런던 고음악 콘서트의 <르네상스 무곡> 앨범

‘런던 고악 콘서트, The Early Music Consort of London’를 조직하여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 발굴에 진력함으로써 고음악 연주에 불을 지른다. 뛰어난 리코더(Recorder) 연주자이기도 한 그는 자신이 사용하는 리코더를 모두 시대적 고증을 거쳐 제작한 인물로도 유명하며, 오늘날의 고음악 지도자들인 호그우드, 피노크(T.Pinnock) 등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장본인이기도 하다. 불과 34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에너지가 넘친 그는 무려 50종의 음반을 발표했다. 물론 그 음반들은 초기 고음악 연주 운동의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 공연 환상과 마법의 가족 오페라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2월 29일 금요일 오후 5:00, 3월 1일 토요일 오후 2:00, 5:00 중극장



동화적 상상력과 연극적 요소로 어린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랜드 오페라단의 뮤지컬 오페라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최고의 독일 오페라 작품으로 평가되는 '마술피리'를 어린이와 가족 관객의 눈높이에 맞춰 독일어 아리아와 대사를 우리말로 바꾸고, 빠른 극적 전개와 신비한 마술장면 및 랩송 등을 도입해 가족 오페라

로 제작했다.

· 연출/안지환 · 드라마투르기/오계영
· 음악편곡/김태호 · 무대장치디자인/전성중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70), 그랜드오페라단(610-1004)

뮤지컬 '싱글즈'

3월 1일-2일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 대극장



제 13회 한국뮤지컬대상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어 작곡상, 무대미술상, 남우신인상 3개 부문상을 수상한 화제의 뮤지컬 싱글즈 부산무대.

2007년 한국 연극지 선정 올해의 공연 BEST7에 선정되기도 한 싱글즈는 직장에서의 좌천과 오랜 연인의 이별선고로 인생최악의 생일을 맞은 29살 나난과 그의 친구들 동미, 정준 등 서른 살을 앞둔 청춘남녀의 일과 사랑을 재미있게 그렸다.

'GOD'의 손호영, 뮤지컬 <드라큘라> 이후 1년 9개월만에 무대로 돌아 온 이종혁, 탤런트 겸 뮤지컬배우인 김지우가 열

연한다.

· 원작/카마타토시오 '29세의 크리스마스'
· 출연/손호영, 이종혁, 이건영, 김지우, 박혜나 외

관람료 R석 70,000원 · S석 60,000원 · A석 5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ANSITE(1644-4484)

엄정행 데뷔 40주년 기념리사이틀 테너 엄정행의 겨울목련화

3월 3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우리가곡의 대중화를 위해 폭넓은 활동을 펼쳐 온 테너 엄정행의 데뷔 40주년을 기념해 노래인생을 총 정리하며 들려주는 '테너 엄정행의 겨울목련화'.

아직도 많은 팬을 가진 성악가로 사랑받고 있는 테너 엄정행의 이번 독창회는 10년 만에 갖는 독창회로 관심이 높다. 이번 무대에서 엄정행은 애

호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애창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목련화, 가고파, 저 구름 흘러 가는곳, 비목, 기다리는 마음, 떠나가는 배, 박연폭포, 그리운 금강산, 선구자 외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CAC(017-568-6055, 011-837-2297)

춤사랑 무용단 제1회 정기공연

3월 3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연제문화원에서 우리 전통 춤을 수강한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춤사랑무용단의 제1회 정기공연.

춤사랑무용단은 그동안 각종 경로잔치연, 전국문화원 합동공연, 온천천 문화축제 등에서 초청공연을 가졌다.

프로그램

입춤, 살풀이, 산조, 장고춤, 선녀춤, 소고춤, 화관무, 바구니 춤, 부채춤

관람료 무료
문의 이숙재(016-818-2065)

유영욱 피아노 독주회 '피아노를 위하여'

3월 5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예술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로스톡국립음악학교 최고연주자과정을 마치고 귀국,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유영욱 독주회. '피아노를 위하여'라는 타이틀로 아름다운 선율의 낭만파 시대 피아노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드뷔시/피아노를 위하여
쇼팽/야상곡 다단조

리스트/헝가리 광시곡

프로코피에프/소나타 6번

관람료 초대

문의 유영욱(010-3198-1035, 011-879-3323)

장애인의 희망 굿월을 돕기 위한 부산음악사랑회 제3회 정기연주회

3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음악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부산음악사랑회 60여명의 회원이 들려주는 '장애인의 희망 굿월'을 돕기 위한 제3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카르딜로/무정한 마음
임금수/강 건너 봄이 오듯
이수인/석굴암
도니젯티/무젯타의 왈츠 등 수곡

출연

강학훈(테너), 박경희(바이올린), 민수연(소프라노) 외 전문음악인
한성권, 민정식, 정복귀, 박성만, 김성보, 김성홍, 황명혜 외

· 피아노/곽윤희, 김현옥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부산음악사랑회(010-2567-4209)

윤선애의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노래

3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젊은 거장 - 피아니스트 박종화 초청 독주회

3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약관 20세인 1995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음악콩쿠르 최연소 입상과 최우수 연주자상 수상, 스페인 산탄데 국제피아노콩쿠르 입상과 청중 인기상, 부조니콩쿠르 입상 및 부조니상 수상, 국제 영 키보드 콩쿠르 종합(Solo & 협연) 1위 등 수많은 국내외 콩쿠르에 입상하면서 세계적인 연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종화 부산 초청 독주회.

박종화는 2007년 가을학기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제 23번 바단조 작품 57 '열정'

쇼팽/발라드 제 4번 바단조 작품 52 리스트/소나타 나단조 등

관람료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627-2572)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박호성과 전영록의 11시 종이학 이야기'

3월 6일 목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청중들을 위해 선사하는 한 낮의 여유,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2008년 첫 무대. 주옥같은 히트곡을 남긴 영원한 오빠가수 전영록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그의 음악인생에 획을 그을 특별한 무대를 갖는다.

프로그램

이준호/봄의 화사한 나들이를 위한 창작관현악 '춘광여정(春光旅情)'

백성기/소리가 있는 창작관현악 '추억의 동백섬'

전영록의 종이학 노래이야기/애심, 종이학,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등 수곡

· 지휘/박호성 · 특별출연/전영록
· 노래/박성희, 정선희 · 모듬북/신문범, 최오성 · 춤/부산시립무용단

관람료 균일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37회 정기연주회

3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2월 봄의 싱그러움을 담은 신춘음악회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3월에는 라흐마니노프 봄의 낭만을 선사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휘자 박은성이 지휘하고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감성과 논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피아니스트 김대진이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피아노 협주곡 제 2번 다단조 작품 18

라흐마니노프/교향곡 제 2번 마단조 작품 27

· 지휘/박은성
· 협연/김대진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낭만이즘마' 등 최근에 발표한 신곡과 더불어 시대를 따라 변해간 7, 80년대의 우리 포크송과 우리 귀에 친숙한 외국의 포크송을 들려주는 윤선애의 포크 음악회.

서울대학교 노래동아리 '메아리'에서 노래를 시작한 윤선애는 1986년 노래모임 '새벽'을 통해 다양한 공연 활동을 해왔다. 윤선애는 2000년 일본 공연 <긴 밤 지새우고

> with 김민기, 안치환, 2005년 '노래를 찾는 사람들' 20주년 기념공연에 참가한 바 있다.

프로그램

낭만이즘마,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하산, 민주, 저 평등의 땅에, 그 사이, 바다, 500miles, Wayfaring Stranger, Danny Boy 등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노래 (011-9388-4358)

부산 멜로스오케스트라 제 5회 정기연주회

3월 8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2002년 평소 악기를 연습해온 음악애호가들로 창단된 부산 멜로스오케스트라의 제 5회 정기 연주회. 부산 멜로스오케스트라는 그동안 부산은행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좋은 강인병원

환자들을 위한 초청연주회 등의 무대에서 음악사랑을 실천해왔다.

프로그램

베토벤/심포니 제 1번 작품 21

스트라우스/황제 왈츠

차이코프스키/백조의 호수

브람스/헝가리 무곡

· 지휘/윤상운

관람료 초대

문의 이순희(017-563-5067)

벨칸투스 성악연구회 및 유니버설 댄스스포츠 연합회 아리아와 함께하는 무도회 시즌 2008

3월 9일 일요일 오후 6:00 대극장

한국 최초로 시도하는 스포츠댄스와 아리아가 어우러진 콘서트 '아리아와 함께하는 무도회 시즌 2008'.

1부 전문 성악가들의 아리아를 시작으로, 2부에서는 전국스포츠댄스연합회의 프로 강사들이 출연하여 모던댄스(왈츠, 탱고, 퀵스텝 등)와 라틴댄스(룸바, 자이브, 차차차 등), 3부에서는 댄스와 아리아가 조화를 이룬 무대가 펼쳐진다. 동화 속 이야기 백설공주를 테마로 관객들이 좀 더 친숙하게 공연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무대를 꾸민다.

프로그램

동심초 등 한국가곡, 베스와 퍼기 등 오페라아리아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올 아이 에스쿠 오브 유' 등 듀엣, 백설공주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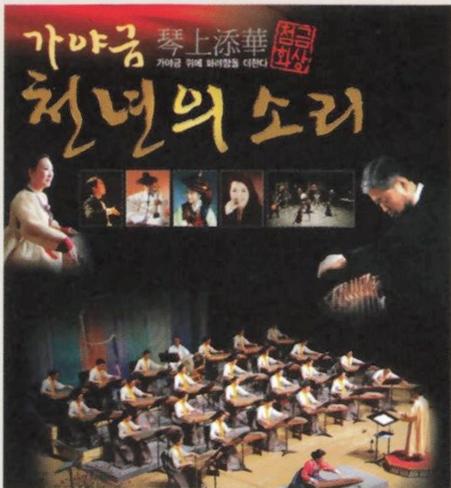
소프라노 이수정, 소프라노 이혜강, 테너 박훈, 베이스 김정대, 피아노 정효원, 전국스포츠댄스아카데미연합회 프로강사 구경서 회장, 이현주, 오훈, 김여정, 심미금 외

관람료 균일 30,000원

문의 이수정(011-393-5118)

KNN창사 13주년 특별기획 부산가야금 연주단 제 4회 정기연주회 가야금 천년의 소리-금상첨화

3월 8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한국의 대표적 전통악기인 가야금 선율로 현대화시대의 우리 음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부산가야금연주단의 제 4회 정기연주회.

단장 김남순 교수(부산대학교 국악학과)를 중심으로 27인의 전문 연주인으로 결성된 부산가야금 연주단은 2005년 창단공연을 시작으로 3회의 정기공연, 제 10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한·일 40주년 수교기념 빅콘서트, KNN방송 The Classic '공감' 협연 등의 무대를 가져왔다.

프로그램

제1부-화려한 시절

- 황의중/뱃노래 3중주
- 김병호류 산조 중주
- 전인평/신라 환상곡
- 황병기/가야금 독주 '침향무'

제2부-화려한 외출

- 이수은(편곡)/가야금선상의 아리아
 - 백규진(편곡)/영화속 아름다운 선율 등 수곡
 - 지휘/이수은 · 단장/김남순
 - 협연/김영재(해금), 김혜란(국악가요), 허지영(생황)
 - 특별출연/가야금 명인 황병기, 퓨전국악 홀 : WHOOL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문 의 KNN(850-9250), 인터파크(1544-1555)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 공연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3월 13일-23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8:00, 일요일 2:00, 7:00
대극장



1933년 상영된 영화 '42번가'를 무대화한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오리지널 팀 부산공연.

1930년대 대공황기에 브로드웨이의 중심인 42번가를 배경으로 무명의 뮤지컬 배우가 스타로 탄생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데이비드 매릭이 1980년

뮤지컬로 제작한 이후 브로드웨이에서만 3,486회 장기공연 기록을 세우고 1980년 토니상 최우수작품상과 안무상을 수상하였다.

브로드웨이 42번가는 2001년에도 새롭게 제작되어 토니상 8개부분에 노미네이트되어 최우수 리바이벌 작품상, 여우주연상, 드라마데스크상, 외부비평가 협회상 등을 석권하기도 했다.

- 작곡/Harry Warren
- 연출/Mark Bramble
- 안무/Rick Conant

Musical Number

Audition, Young and Healthy, Shadow Waltz, Go Into Your Dance, You're Getting to Be a Habit With Me, Getting Out of Town 등

관람료 VIP석 120,000원 · R석 100,000원 · S석 80,000원 · A석 60,000원 · B석 4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AN시티(1644-4484)

제 32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3월 9일 일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의 젊은 음악가들로 결성된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 베토벤/교향곡 제 1번 다장조 작품 21
 - 모차르트/바이올린 협주곡 제 5번 가장조 K. 219
 - 오펜바흐/자클린의 눈물 등 수곡
 - 지휘/김용문
 - 협연/최한슬(바이올린), 정금희(첼로)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 의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627-8088, 011-565-8088)

단비울 남성앙상블 제 7회 정기연주회

3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 시내 거주하는 교사, 의사, 회사원, 경찰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성악 애호가들로 구성된 단비울 남성앙상블의 제 7회 정기연주회.

단비울 남성앙상블은 남성 특유의 중후하고 풍부한 화음으로 종교곡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곡을 불러 사회 속에 메마른 정서를 순화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 활동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단비울'이란 이름은 메마른 가슴, 갈라진 이 땅을 적시는 단비로 각박한 회색 마음을 녹색의 마음으로 소생시키기 위해 지어진 이름이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Ave Verum Corpus
- 러시아민요/볼가강의 뱃노래
- 코플랜드/칭아링 초우 안영준/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등
- 특별출연/류재환(오보에)
- 지휘/강성철 · 피아노/김은정

관람료 초대

문 의 강성철(018-760-6468)

남구 오륙도무용단 제 1회 정기공연

3월 12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춤에 대한 열정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남구 오륙도무용단'의 제 1회 정기공연.

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전수자, 무형문화재 제 97호 살풀이춤 이수자인 오숙례 단장과 2004년부터 틈틈이 우리 춤을 수련해온 남구 오륙도무용단은 이기대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벅스코 봄나물 축제, 기장군 멀치축제, 남해군 마늘축제 등 전국의 지역축제는 물론 노인무료급식 봉사공연, 독거노인 위문공연, 노인대학 위안잔치 등의 무대에서 따뜻한 사랑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 승무, 살풀이춤, 장고춤 산조, 민요춤 장고춤, 산조춤 민요춤, 한량무, 동백꽃 환타지
 - 영남농악, 소고누리
- 관람료 초대
문 의 박성화(011-591-5130)

제 1083회 MBC 목요일음악감상회 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 연주회

3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의 차세대 국악 유망주들로 구성된 부산청소년 국악관현악단이 들려주는 제 1083회 MBC 목요일음악 감상회.

국악을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 60여명으로 구성된 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은 2007년 8월 금정수요음악회로 국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가진 이래 창단 연주회와 부산문화회관 토요일상설무대, 가톨릭센터 화

요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청중들에게 독창적이고 친숙한 레퍼토리로 우리 음악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프로그램

해금중주/섬집아기, 침밀밀
가야금중주/17현가야금을 위한 단모리
거문고 중주/출강
관현악/신풀이, 신뱃놀이, 아리랑 등 수곡
· 지휘/홍희철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사) 문화도시네트워크(761-0255), 홍희철(016-510-0753)

22nd 유u; 콘서트 프리포즈 I 'Waltz'

3월 18일 화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저녁 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청중들을 위해 매달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나는 유u; 콘서트 스물 두 번째 무대.

이번 무대는 오충근 교수가 지휘하는 부산 심포니오케스트라가 매혹적인 첼리스트와 함께

꾸미는 협주곡, 그리고 감미로운 춤곡들로 레퍼토리를 구성, 상쾌한 아침 클래식 선율로 관객들에게 프리포즈한다.

한국일보콩쿠르, 독일 Folkwang콩쿠르 대상, 바르셀로나 카날스 국제콩쿠르에서 수상하고 독일 Essen Folkwang 국립학교를 수석졸업(현악과 최초 최우수졸업)한 동아대학교 이명진 교수와 뉴욕 퀸즈 오페라콩쿨 1위, 미국 메트로폴리탄 콩쿨 뉴저지 지역 우승을 비롯 리더크란츠, 중앙, 베르시모오페라 콩쿨 등에 다수 입상하고 현재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김방술이 협연한다.

프로그램

폰키엘리/오페라 '라 조콘다' 중 '시간의 춤'
요나손/빠죽 왈츠
브람스/봄의 왈츠
들리브/오페라 '코펠리아' 중 '왈츠'
김연준/무곡
드보르작/슬라브 댄스 제 2번
구노/'로미오와줄리엣' 중 '아! 꿈속에 살고 싶어라' '줄리엣의 왈츠'
스비리도프/왈츠
드보르작/첼로 협주곡
구노/파우스트의 '왈츠' 등 수곡
· 지휘/오충근(고신대학교 교수)

· 협연/첼로 이명진(동아대학교 교수), 소프라노 김방술(울산대학교 교수)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음악감독/임병원)

관람료 15,000원(국제신문 구독자 및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할인)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황정미, 강남길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3월 17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피아니스트 황정미와 강남길이 들려주는 피아노 듀오 연주회.

독일 쾰른 국립음대에서 연주자과정 디플롬을 획득하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황정미는 1991년 쇼

팽의 24개의 전주곡 전곡 연주, 1994년 베토벤 소나타의 밤, 1998년 슈베르트의 밤, 2003년 드뷔시의 밤 등 한 작곡가의 곡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특색있는 독주회로 호평을 받았다.

경성대학교 대학원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강남길은 2000년 독일 다름슈타트 현대음악제에 초청되어 연주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 오르며 그만의 독자적인 음악세계를 널리 알려왔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소나타 라장조 K.448
라벨/서주와 알레그로
아렌스키/모음곡 제 1번 작품 15
미요/스카라무슈 작품 165b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조윤선(010-7795-0035)

양상블 모데르나 인 부산 창단연주회 새로움을 향하여

3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서울시립대학교 김영준 교수가 이끄는 양상블 모데르나 인 부산 (Ensemble Moderna in Busan) 창단을 기념하는 무대.

양상블 모데르나 인 부산은 청중들에게 현대음악장르를 이해

시키고 동시대 음악을 이끌어 나가는 멘토가 되기를 희망하는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야나체크/현악 4중주 제 1번
쇼스타코비치/피아노 5중주 사단조
비발디/사계 중 겨울, 봄(편곡/김수진) 등 수곡

연주

김영준(지휘 및 바이올린 독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백재진, 김준영, 방효준, 이기종(이상 바이올린), 김은진, 임정은(비올라), 양욱진, 송언경(이상 첼로), 정성흠(피아노) 외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최윤정 피아노 독주회

3월 23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University of North Texas 음악대학 석사학위 및 연주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피아니스트 최윤정 독주회.

최윤정은 유학중 2002 Concerto Competition of the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9회 정기연주회, 신춘음악회 년별 뮤지컬 Jump와 함께 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JUMP 2008'

3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세계 무대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뮤지컬 점프팀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작한 국악관현악에 맞추어 새롭게 구성한 년별 퍼포먼스 뮤지컬 'JUMP 점프', 동적인 리듬과 아름다운 선율에 얽은 부산시립무용단의 화사한 춤, 힘찬 봄의 소리와 영남을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폭 넓게 활동하고 있는 명창 박수관의 동부민요 협연 무대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이경섭/화사한 봄길을 위한 창작관현악 '거리'
국악관현악과 년별 퍼포먼스 뮤지컬 'JUMP점프' (구성/박호성) 등 수곡
· 지휘/박호성(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 · 특별출연/JUMP 팀
· 협연/박수관(동부민요) · 춤/부산시립무용단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28회 정기연주회 봄에 전하는 사랑이야기...

3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지난해 대만 연주회 이후 한층 더 성숙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2008년 첫 정기연주회.

작곡가 딜리어스의 봄 향기 가득한 작품과 작곡가 포레의 작품에 묻어나는 장난스럽고도 사랑이 가득한 음악을 선사하는 이번 무대는 2년 연속 보스턴글로브지에 '정열과 우아함을 가진 연주자'로 호평을

받으며 표지를 장식한 피아니스트 김연정, 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악장 정이아가 협연한다.

프로그램

딜리어스/봄의 첫 빠꾸기 소리를 들으며 쇼팽/피아노 협주곡 제1번 마단조 작품 11
라벨/치간느 포레/모음곡 '돌리' 작품 56
· 지휘/이동신 · 협연/김연정(피아노), 정이아(바이올린)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1)

2008 제 26회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극단 76극단 '관객모독'

3월 29일-30일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중극장



부산연극인들의 최고 축제인 2008 부산연극제. '당신을 케스팅하다!' 라는 컨셉으로 열리는 올해 부산연극제는 경연에 참가하는 8개 극단과 극단 76극단의 축하공연, 6개 단체의 자유 참가 공연, 역대 대상수상작품 사진전시회(시민회관), 부산연극정보관(시민회관), 세미나(부산교육대학교), 부산시민연극제 등이 펼쳐진다.

축하공연으로 부산 무대를 찾는 극단 76극단 '관객모독'은 4개의 의자와 4명의 배우만으로 진행되는 언어연극으로 무시된 띄어쓰기, 단어 의미의 중복성, 목사님의 설교 같은 어조와 악장수 같은 상황 설정 등 언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화제의 연극이다.

· 작/페터 한트케 · 연출/기국서
· 출연/성홍일, 최재형, 서민균, 이재인, 김채린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5,000원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International Piano Workshop in Kromeriz, Czech Republic 1등상, Kromeriz Festival Orchestra 와 협연, 2003 Prague Concerto Competition of the International Piano Workshop in Czech Republic 1등상을 수상하고 Varna Philharmonic Orchestra와 협연했다.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작품 31-3 내림마장조

시마노프스키/소나타 제 3번 작품 36

라벨/거울-나방, 슬픈 새, 바다위의 조각배, 어릿광대의 아침노래, 골짜기의 종

관람료 초대

문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부산 통기타 리스트 제 13회 정기공연

3월 23일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2001년 8월 결성된 통기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산 모임 '부산 통기타 리스트' 제 13회 정기공연.

통기타를 사랑하는 순수 음악 모임으로서 연 2회의 정기 공연

과 자선공연, 거리공연 등을 통해서 통기타 음악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다.

프로그램

바다에 누워, Isn't she lovely, 결혼할까요, 꿈의 세계로, Hotel California, Falling Slowly (혼성듀엣) 등 수곡

관람료 무료

문의 남상석(019-402-5880)

독일가곡연구회 제 33회 정기연주회

3월 24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1987년 독일어권에서 수학한 성악가와 피아니스트로 창단된 독일가곡 연구회의 제 33회 정기연주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신라대학교 김미성 교수를 중심으로 30여명

의 회원들이 매년 2회의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 등으로 연구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Fruehling'(봄)이라는 주제로 정기연주회를 가진다.

프로그램

봄의 소리 왈츠(슈트라우스), 나의 장미(슈만), 왈츠에 붙인 새로운 사랑의 노래(브람스), 다른 5월의 노래(멘델스존), 봄이다(볼프), 5월의 밤(브람스) 등 독창과 중창, 합창곡

출연

김명규, 박미경, 김현주, 김혜정, 정서영(이상 소프라노), 정옥심(메조 소프라노), 김현식, 김지호(이상 테너), 허종영(바리톤), 김일석(베이스)

· 피아노/박미은, 박혜선, 박필은, 곽윤희, 공소현, 손정화, 김혜린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김현식(011-566-4172)

이솔리스트와 기아대책이 함께하는 행복나눔콘서트

3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음악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ISOLISTI의 창단이후 네 번째 나눔 공연으로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기아대책과 함께 지구촌 굶주린 어린이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기 위한 자선 음악회를 연다.

이번 무대는 지역 정상급 성악가들과 함께 오페라 아리아, 성가, 가곡, 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솔리스트 남녀 앙상블과 합창 등의 이색적인 공연을 선사한다.

출연

수(秀) 레이디 싱어즈, 기장군소년소녀합창단, 부산연천초 교어린이합창단, 행복한 홈스쿨 어린이합창단, 소프라노 박미경, 남성 성악 앙상블(방현호, 박찬, 우원석, 김상호, 임재우, 권영기, 김정대)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문의 ISOLISTI(747-1567)

독우회 정기연주회

3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독일에서 음악수업을 한 연주자들로 구성된 독우회의 정기연주회.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디플롬 및 최고연주자과정, 네델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디플롬 및 최고연주자과정, 독일 쾰른 국립음대 반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임효진, 독일 Freiburg 국립음대를 졸업한 김지민, 독일 Freiburg 국립음대, Trossingen 국립음대 최고음악인 과정 Konzert Examen을 졸업한 원영아가 연주한다.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열정' 작품 57 바단조
브람스/6개의 소곡 작품 118
리스트/녹턴 I, II, III
리스트/헝가리 광시곡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원영아(011-844-0762)

제 3회 유니슨 콰르텟 정기연주회

3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지난해 3월 솔리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신상준, 엄세희, 비올리니스트 김가영, 첼리스트 유대연으로

결성된 유니슨 콰르텟 정기연주회.

유니슨 콰르텟은 서로의 음악적 해석을 이해하며 테크닉적인 면과 음악적인 면을 동시에 맞추어 간다.

프로그램

브람스/현악 4중주 제 1번
보로딘/현악 4중주 제 2번 등 수곡

출연

신상준(바이올린), 엄세희(바이올린), 김가영(비올라), 유대연(첼로)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2008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나비맛 '락'

3월 28일-30일 금-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후 4:30 소극장

부산연극제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는 부산의 대표적인 락밴드 '나비맛'의 앨범 발매 기념 공연.

부산연극제 무대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공연에 들어가는 나비맛은 3년 동안 준비한 그들의 음악을 대중에게 알리고 평가받기 위해 나비맛의 앨범 수록 곡을 풀 세션으로 들려준다.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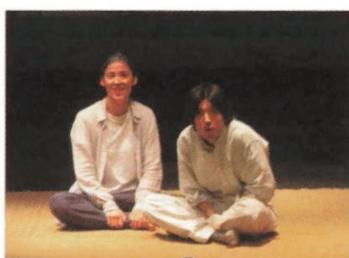
노은지, 이철규, 조종원, 박동국, 정현정, 최경철, 성현우, 허경미, 방현구, 김광일, 조민욱, 박순자, 홍영준

관람료 일반 20,000원(예매 15,000원)
청소년 15,000원(예매 10,000원)

문의 나비맛(325-7078)

2008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자유바다 '어머니'

4월 1일-6일 화-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4:30 소극장



야구 경기를 보며 아들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어머니, 질곡의 세월이었지만 웃으며 즐겁게 삶을 돌아보는 모습

에서 어머니의 위대함과 6-70년대를 살아온 인고의 세월을 보낸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 작, 연출/이동희

출연

이동희, 신영주, 강혜란, 오영섭

관람료 일반 20,000원(예매 15,000원)
청소년 15,000원(예매 10,000원)

문의 극단 자유바다(622-3572)

2008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누리에 '사이에서'

4월 2일-3일 수요일 오후 7:30
목요일 오후 4:30, 7:30 중극장

한유산 어느 동굴에 숨어 사는 앞 못 보는 당대 최고의 신 무당인 친할머니 월선과 할머니를 미워하는 아버지 사이에서 힘들어 하는 창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막막함과 설움을 묵묵히 제 안에 눌러 담으며 살아왔던 12살 소년 창이가 눈과 귀를 열어, 세상을 대하기 시작한다.

· 작/권영주 · 연출/강성우

출연

유상훈, 진선미, 최성희, 김학준, 김태훈, 최현경, 강봉금, 황정미

관람료 일반 20,000원(예매 15,000원)
청소년 15,000원(예매 10,000원)

문의 극단 누리(621-3573)

부산시립극단 제 31회 정기공연 한 여름밤의 꿈

4월 4일-5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대극장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낭만희극 '한 여름 밤의 꿈'으로 만나는 부산시립극단 2008년 첫 정기공연 무대.

이번 작품은 원작을 그대로 살린 전통극으로 환상적이고 동화같은 유쾌한 러브스토리가 펼쳐진다.

· 작/셰익스피어

· 연출/손기룡

· 역/이정래

· 안무/홍기태

출연

박찬영, 임해련, 이혁우, 유성주, 김은희, 박정민, 엄준필, 이현주, 이은주, 이돈희, 황창기 외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극단(607-6036~8)

2008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연구집단 시나위 '내 가방'

4월 5일-6일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후 4:30, 7:30 중극장

2인조 강도로 나선 30대 후반의 실직가장, 10대 후반의 사진 작가 지망생을 통해 우리시대 사람들의 고민을 표현한 극연구집단 시나위의 경연 참가작 '내 가방'.

· 작, 연출/강태욱

출연

박상규, 김혜정, 백길성, 서성원, 시원준, 박근태, 김현진, 백상희, 반필우

관람료 일반 20,000원(예매 15,000원)
청소년 15,000원(예매 10,000원)

문의 극연구집단 시나위(554-5244)

음악

PBC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 4일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 독주회



신라대학교 교수이자 아르츠 스트링 콰르텟 리더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가 우리에게

게 친숙한 클래식 곡을 들려준다.

· 클래식기타/고충진

■ 11일 러시아음악연구회 콘서트

러시아에서 음악수업을 받은 음악가들이 러시아음악을 보급하기 위해 지난 2007년 5월 창단한 러시아 음악연구회가 마련한 러시아음악의 밤.

· 출연/강남길(피아노), 허영은, 박진영(이상 소프라노), 김혜진(플루트), 최선양, 문혜정(이상 바이올린), 이수진, 김유진, 김정숙, 현미경(이상 피아노)

■ 18일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5중주 G-스트링 연주회



고음악기인 바이올린에서의 가장 저음인 G음과 저음악기로 편안한 앙상블을 들려주는 부산시

립교향악단 현악5중주 G-스트링이 희망찬 새 봄을 맞아 왈츠와 소곡으로 마련하는 신춘무대.

· 출연/박연정, 신민정(바이올린), 황보민정(비올라), 전지윤(첼로), 이호영(더블베이스)

■ 25일 피아니스트 백민정 일시귀국 독주회



미국 시카고 스키키 벨리 심포니오케스트라 콩쿠르 1위, 이탈리아 라흐마니노프 국제피아노콩쿠르 1위, 뉴욕예술재단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하고 현재 미국 메네스음대에 재학중인 피아니스트 백민정 독주회.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의 가톨릭센터(462-1870, www.bccenter.or.kr)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 5일 재즈밴드 크로스노트 콘서트

지난 1999년 재즈기타리스트 김은섭을 주축으로 결성된 6인조 재즈밴드 크로스노트는 이번 무대에서 트롬본과 트럼펫의 화려한 색채로 경쾌한 재즈와 펑크를 들려준다.

■ 12일 3인 음악회

테너 김화정, 김성진, 바리톤 하병욱이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독창 및 3중창으로 들려준다.

· 피아노/이소영

■ 19일 천년의 소리 대금앙상블 연주회



대금 앙상블 '천년의 소리'가 따뜻하면서도 신비한 소리를 지닌 대금 앙상블 무대를 마련한다.

· 해설/허재성

■ 26일 칸타빌레 남성앙상블 연주회



현직 대학 전임 및 외래 교수들로 결성된 프로남성 중창단인 칸타빌레 남성앙상블은 1997년 12월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무대를 통해 남성앙상블 특유의 넉넉함과 편안함 속에서도 강렬하면서도 화려한 앙상블을 선보여왔다.

· 피아노/박기덕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남산놀이마당 '숫대. 날다...'

5일-7일 수-금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우리의 근현대사를 통해 지금이 땅과 일본에서 살아가는 우리민족의 이야기를 역동적이면서도 신

명나는 타악으로 풀어낸 남산놀이마당 '숫대. 날다...'

· 연출/장재희

관람료 일반 12,000원 · 학생 8,000원
문의 남산놀이마당(516-4434, 016-856-4434)

고익석 기타리사이틀

9일 일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대전일보사 주최 전국 클래식기타 콩쿠르, 한국기타 협회 콩쿠르에서 1위 수상하고 도쿄 국제기타콩쿠르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된 기타리스트 고익석 독주회.

프로그램

세르지오 아사드/수채화 바흐/샤콘느 등 수곡

관람료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학생 50% 할인)

문의 디자인기타(02-730-9693)

Amici della musica-음악친구들 오페라 갈라 리사이틀

10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인제대학교 교수로 있는 테너 김성진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클래식 음악회.

모차르트, 도니

제티, 베르디 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주는 오페라 갈라무대로 마련된다.

관람료 초대

문의 클래식 프론티어(02-3141-5729)

소프라노 이민희 귀국독창회

1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동의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로스토크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Mecklanburg vorpormen stralsund 극장 단원을 역임한 소프라노 이민희 독창회.

독일과 폴란드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이민희는 이번

무대에서 독일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등을 들려준다.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이민희 성악스튜디오

(853-2397, 010-4785-9587)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11시에 만나요

-계절을 여는 을숙도 봄 콘서트

13일 목요일 오전 11: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저녁시간대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주부, 여성 청중들을 위해 마련한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2008년 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정우영이 지휘하고 칸타빌레 남성앙상블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최근 가수로 복귀한 탤런트 정소녀가 사회자로 특별출연해 자신의 히트곡 '그 사람', '깜빡' 등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비제/ '카르멘' 중 '아라고네이즈-하바네라-전주곡' 한/블루스 팩토리

한스 짐머/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모음곡 등 수곡

관람료 무료

문의 을숙도 문화회관(220-5341)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및 부산시립소년 소녀합창단 창단 35주년 기념특별 음악회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세상 II

15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시립예술단의 주 공연자인 부산문화회관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 지역문화회관에서 갖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공연.

프로그램
비발디/사계 중 '봄'
사라사테/찌고이네르바이젠
김태호(편곡)/동요메들리 등 수곡
· 지휘/전상철(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옥, 이승윤
· 특별출연/신상준(바이올린 · 인제대 교수), 동래여자중학교합창(지휘/김태하)

관람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6131)

아르스노바 창단연주회 -보이는 라디오 음악회-

16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인터넷 '보이는 라디오'를 무대 컨셉으로, 실제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것처럼 연출, 개성 넘치는 무대를 선보이는 아르스노바 창단연주회

· 출연/김미정, 김문주, 김소영, 이지원, 정수희, 남지현, 정현지, 김귀득, 이영은, 우성용, 지문진
· 특별출연/김주리(성악), 김정민(플루트)

관람료 초대
문의 김귀득(010-5033-4687)

피아니스트 박재영 귀국독주회

1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독일 Leipzig 국립음대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한 피아니스트 박재영 귀국 독주회.

프로그램
바흐/파르티타 내림나장조 BMW 825

모차르트/소나타 제 13번 내림나장조 KV. 333
브람스/판타지 작품 116 등
관람료 초대
문의 클래식아트매니저(624-1991, 016-368-2445)

동성원과 함께하는 크로노스앙상블 연주회

2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지난 2002년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결성된 크로노스앙상블은 창단 이후 바로크와 현대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와 멋진 앙상블로 부산의 대표적 실내악단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번무대는 아동복지 시설 동성원과 함께하는 자선음악회로 마련된다.

· 연주/정우영, 류재환, 이장호, 조양희, 김은아, 우소라, 한아름, 양혜원, 박소영, 김상철, 김판수, 서승은, 윤강희, 김민선
· 특별출연/윤해승(해금)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이장호(010-8302-4770)

부산어린이성가작곡회 제 12회 작곡발표회

22일 토요일 오후 5:00 글로벌아트홀



어린이 성가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창립한 부산어린이성가작곡회는 그동안 12차례 정기발표회를 통해 어린이 성가 300여곡을 발표해왔다.

관람료 무료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부산신포니에타 제 61회 정기연주회 한국을 빛낸 젊은 영웅들

24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진지하면서도 열정적인 연주로 부산의 실내악을 이끌어온 부산신포니에타의 제 61회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는 독일 오스나브루크 오케스트라 부수석으로 있는 첼리스트 김유리와 쇼팽콩쿠르 입상자인 피

아니스트 김현재의 열정적인 협연무대로 마련된다.

· 지휘/최승용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김영희(011-9519-0448)

경남챔버소사이어티 제 13회 정기연주회

24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경남대학교 차문호 교수를 중심으로 결성된 경남챔버소사이어티의 13번째 정기연주회.

· 출연/차문호, 김성은(이상 바이올린), 이정환(비올라), 박현영, 김성덕(이상 첼로), 이화영선(피아노)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앙상블 '피아체레' 창단 연주회

24일 월요일 오후 7:30 글로벌아트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 구성된 앙상블 '피아체레'의 창단 연주회.
연주
임나리, 손은혜(이상 바이올린), 안소연(비올라), 김가연(첼로), 유지훈(클라리넷)

관람료 무료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2008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오페라제작소 밤비니 마술피리

28일 금요일 오후 7:30, 29일 토요일 오후 4:30, 7:30 시민회관 소극장

모차르트 특유의 감성과 익살이 살아있는 극적 구성과 선과 악에 대한 철학이 담긴 오페라 '마술피리'를 오페라제작소 밤비니가 선보인다.

· 연출/김성경
· 출연/양승엽, 장은영, 김나정, 오세민, 권미경 외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예매시 5,000원 할인)
문의 오페라제작소 밤비니(703-0737)

책사랑 53년 대형서점 지하1~5층 엘리베이터연행

전국최고 종합지도(지구본센터) (과장광고 아님)

국산 지구본 최상품만 취급/외국산 지구본 최상품취급

▶ 국 산 : 소 · 중 · 대 · 초대형, 위성, 지세, 행정 다양함 20%할인
▶ 외국산 : 세계적 매출 독일 스텔라노바 소 · 중 · 대 초대형
공중부양, 뜨고, 돌고, 한 · 영지명 출시중 색상별엔 선물용회고

지도의 모든것! 종류가 많아서 일부만 안내합니다.

▶ 전국, 시, 도별지도 전국교통관광지도, 국내, 외국관광책자
▶ 전국전자지도 PC로 지적, 지번, 도면 확대 축소 연결자유
▶ 경매, 부동산, 건설 설계, 시공, 통신, 유통, 택배,
▶ 금융기관, 업무용, 기타 각종업체! 정부발행지도판매
▶ 지형도 당지도센터 취급의 1:3000지도를 연결코팅
▶ 부동산업계, 기타, 회사, 사용용도에 따라 소중, 대형코팅

대형지도, 지구본 매장 관람을 환영

새 소식!

문우당서점 지도센터에서

세계지도계 초유

한국발명특허 획득

국기 있는 지도(특허품), 국기 없는 지도(2중)

- 대형 금박 고급 액자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일반형 금박 고급 액자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대형, 코팅 박걸이용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일반형코팅박걸이용 세계지도(학교, 가정)
- ★ 학생, 일반공공케이스 / 날정지도(값 5,000원)

since 1955

문우당

MUN WOO DANG BOOK STORE
www.munbook.co.kr

문우당서점

Tel: 245-3843(대표)
245-2714(공연문의)

자갈치시장 정문이 보이는 이지탑 앞
(미니를 건너편)

각종 공연에 매처

CGV10% 적립 통도환타지아 경주월드
할인 판매처

글로벌문화선교회 제 5회 지역주민을 위한 콘서트

30일 일요일 오후 8:00 글로벌아트홀



글로벌문화선교회가 지역주민을 위해 마련한 찬양콘서트 다섯 번째 무대. 관람료 초대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박인영 오보에 독주회

31일 월요일 오후 7:30 글로벌아트홀



당리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면서 현재 영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인영의 오보에 독주회. 관람료 초대
문의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

2월 22일(금)-3월 16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가마골소극장



나이를 초월한 날라리 바람둥이 박동만과 미워할 수 없는 욕쟁이 할머니 이점순의 청춘보다 아름다운 노년의 사랑을 그린 늙은 부부 이야기.

· 작, 연출/위성신

· 출연/공호석, 김용선

관람료 균일 25,000원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가톨릭센터 무대공감 - 극단 누리에 적의 화장법

2월 28일 목요일 오후 4:00, 3월 1일(토), 8일(토) 오후 4:00, 7:30, 6일 목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기상천외한 상상력과 촌철살인적인 대화로, 프랑스 최고의 베스트셀러작가로 사랑받는 아멜리 노통의 소설을 극화한 '적의 화장법'.

· 연출/강성우

· 출연/최성희, 최현경, 김태훈

관람료 일반 12,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극단 누리에(621-3573)

웃찾사-개그콘서트 부산

1일 토요일 오후 4:00, 7:00 KBS 부산홀

서울나들이, 정리정돈, 친절환 형수씨 등 인기코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TV 개그 프로그램 '웃음을 찾는 사람들' 출연진이 선사하는 웃음과 감동의 무대.

관람료 S석 55,000원 · A석 44,000원 · B석 33,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S석 50,000원 A석 40,000원 · B석 30,000원)

문의 WHO엔터테인먼트(622-5744)

가톨릭센터 무대공감 - 마임극단 세진 지니스토리-남과 여

6일 목요일 오후 4:00, 13일(목), 15일(토) 오후 4:00,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누구나 겪어보지 못한 남녀의 만남과 사랑, 헤어짐을 담은 마임극단 세진의 마임극 '남과 여'.

관람료 일반 12,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극단 누리에(621-3573)

가톨릭센터(462-1870)

노동문화예술단 일터 20주년 기념공연 네! 붉은 사랑

7일(금)-30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일터소극장

일제 식민시대를 배경으로, 자본가와 농민, 노동자의 대립과 조직적 투쟁을 현실성 있게 그려낸 리얼리즘



소설의 수작인 강경애의 소설 '인간문제'를 음악극으로 제작한 '네! 붉은 사랑'. 연출/김기영

· 작곡/김미원

· 출연/윤순심, 박성진, 김선관, 이수옥, 조기정 외

관람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일터소극장(635-5370)

부두연극단 20년 앵콜 레퍼토리 No.3 고도를 기다리며

7일(금)-30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액터소극장



부두연극단의 대표적인 레퍼토리, '고도'를 기다리는 두 남자의 코믹한 놀이를 통해 인류의 실존적

상황과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는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 재구성, 연출/이성규

· 출연/유재명, 김우석, 백길성, 박훈영, 김초록

관람료 일반 12,000원 · 중고생 15,000원

문의 액터소극장(611-6616)

전문청소년극단 눈동자 청소년 창작뮤지컬 교실 Live

8일 토요일 오후 2:00, 5:00, 9일 일요일 오후 3:00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

'교실'이라는 사각의 틀 속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청소년 창작뮤지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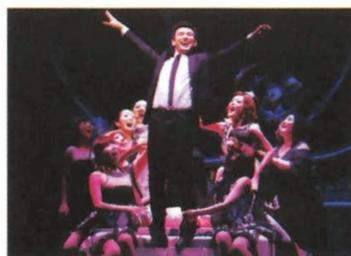
관람료 무료

문의 청개구리 기획실(904-9402)

뮤지컬 나인

15일 토요일 오후 3:00, 7:30

16일 오후 2:00, 6:30 시민회관 대극장



최고의 배우 황정민의 4년만의 무대컴백으로 화제를 모은 뮤지컬 '나인'.

1982년 브로드

웨이에서 초연되어 그해 최우수뮤지컬상 등 토니상 5개 부문을 석권한 뮤지컬 '나인'은 영화 '8과 1/2'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한 남자를 둘러싼 과거와 현재, 기억과 환상이 몽환적인 무대예술로 선보인다.

· 출연/황정민, 강필석, 김선영, 정선아, 양소민, 문희경,

글로벌아트홀 2008 상반기 대관 접수 중

국제수준 어쿠스틱음향 연주홀에서 치루는

제5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쿨

참가대상 초·중·고·대·일반

- 시 상: 상금 총 300만원 (대상 100만원, 최우수 30만원, 우수 10만원)
- 부 문: 피아노 성악 관악 현악 작곡 국악
- 일 시: 5월 3일 작곡 / 5월 4일 국악 / 5월 10일 피아노 / 5월 12일 관악 / 5월 24일 성악 / 5월 31일 우수입상자연주회
- 비 고: 학년별 및 악기별로 세분화하여 각각 심사함

- 특 전: 각 부문 1등 입상자는 글로벌아트홀에서 우수입상자연주회 개최 cd제작
- 접 수기간: 4월 14일~4월 26일까지(우체국소인 4월26일 유효)
- 접 수: http://club.cyworld.com/glovil에서 다운로드 후 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인터넷접수: glovil@paran.com
- 문의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1243-21 글로벌아트홀 (TEL. 051-505-5995)



과제곡
성악/메신앙이 자유곡 2곡
피아노/에릭드 1곡 외 자유곡 1곡
현악 관악 국악/ 자유곡 1곡
작곡/40미디 내외 작곡
(악기와 동가는 당일 제시)

홍윤희, 오은미, 장선유, 홍금단, 배민정 외
 관람료 VIP 120,000원 ·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 A석 50,000원
 B석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예술기획 자유(1599-9210)

타악뮤지컬 야단법석 2008

15일 토요일 오후 3:00, 7:00 KBS 부산홀



음악회 준비로
 분주한 산사에서
 펼쳐지는 스님들
 의 좌충우돌 수
 행이야기를 신명
 나는 우리 전통

음악으로 풀어낸 타악뮤지컬 '야단법석' 2008년 무대.

· 원작/홍일호 · 연출/최성신
 · 출연/이재일, 고병석, 배철민, 이상현, 이미선 외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아우라기획(625-0866, 1544-1555)

극단 노마드 마지막 바캉스

15일(토)-30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30(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불현듯 찾아온 마술 같은
 사랑에 이끌려 현실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영원한 바
 캉스를 떠난 두 남녀의 이
 야기를 그린 극단 노마드의
 '마지막 바캉스'.

· 연출/이상섭
 관람료 일반 25,000원
 학생 15,000원

문 의 극단 노마드(625-5007)

2008 컬투 미친 전국소극장나들이-부산공연

21일 금요일 오후 8:00, 22일 토요일 오후
 3:00, 7:00 동아대학교 석당홀

정찬우, 김태균 등 대한민국 최고의 입담 듀오 컬투
 가 펼치는 2008 소극장 나들이 컬투쇼.
 관람료 균일 55,000원
 문 의 후엔터테인먼트(1588-8477)

락시터(樂時터):즐거운 시절

3월 21일(금)-4월 13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극작가 이근삼
 의 '낙시터 전
 쟁'을 새롭게 각
 색, 젊은 세대의
 정신적 빈곤과
 노인의 소외문제

를 통해 현대인의 세대간 갈등을 그린 연극 '락시터'.

· 원작/이근삼 · 각색, 연출/위성신
 · 출연/신기섭, 손강국, 전형숙, 오종훈
 관람료 균일 2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해운대문화회관 개관 1주년 기념공연 뮤지컬 벤디트

22일 토요일 오후 4:00, 7:30, 23일 일요일
 오후 3:00, 6:30 해운대문화회관



'여자 탈옥수
 4명의 락밴드 이
 야기'가 심장을
 뛰게 하는 역동
 적인 노래와 연
 주로 관객을 사

로잡는 뮤지컬 '벤디트'.

· 연출/이지나 · 작사 및 작곡/정영
 · 출연/이정화, 이영미, 리사, 한지상, 전아민, 인디밴드
 벨라마피아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주)AN시티(1644-4484)

뮤지컬 갓스펠

27일-28일 목-금요일 오후 7:30, 29일 토요
 일 오후 3:00,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예수의 생애와
 구원을 그린 락
 뮤지컬 '갓스펠'
 은 오프-브로드
 웨이 작품으로,
 5년간 매진을 기

록한 작품이다.

· 총감독/손욱 · 연출/김만중
 · 특별출연/테너 박찬
 · 출연/고민석, 배지혜, 정정아, 장희숙, 김성현, 이성희,
 이현지, 손유경 외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문 의 뮤지컬컴퍼니 M&V(011-9520-4649)

해운대문화회관 개관 1주년 기념공연 댄스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29일 토요일 오후 4:00, 7:30, 30일 일요일
 오후 3:00, 6:30 해운대문화회관



비보이, 힙합,
 고전발레, 재즈
 에서 역동적이고
 세련된 현대무용
 까지 모든 언어
 가 춤으로 표현

되는 댄스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주)AN시티(1644-4484)

무용

蓮亭 CHM 기획 104 맥 그리고 창조-원로춤 작가전 1대 · 2대 · 3대 · 4대로 이어가는 오늘의 춤

1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춤과 명상을 통해 선(禪)
 의 세계를 지향하는 춤연
 구전문단체 蓮亭 CHM이
 공연과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전승춤의 정도(正道)
 와 맥을 잇는 창조적 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
 는 뜻깊은 무대.

이윤자 김정녀, 김은경, 김진홍,
 이명자, 이윤자 등 원로들의 명무를 한 자리에서 감상
 할 수 있다.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 의 蓮亭 CHM(510-2949, 555-2949)

YAMAHA 야마하 공식 A/S점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감동을 함께 만듭니다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부산 야마하 피아노 악기

- 양정 본점 : 051) 863-0900
- 롯데백화점 부산점 6층 : 051) 816-0089
- 사직동 홈플러스 : 051) 506-7332

2008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현대무용단 자유 세상사랑

3월 31일(월)-4월 1일(화)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내가 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며, '홀로' 존재한다고 믿지만 결국 '홀로'는 또 다른 '홀로'와 함께한다는 내용을 담은 현대무용단 자유의 '세상사랑'.

· 안무/김수현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예매시 5,000원 할인)
문의 현대무용단 자유(510-1740)

영화

아시아영화펀드 쇼케이스 @ 부산, 서울

4일(화)-13일(목) 오전11:30, 오후1:30, 3:30, 7:30 시네마테크 부산



아사랏 감독 작 '원더 플라워'

부산국제영화제가 지난해 아시아 영화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해 신설한 아시아 영화펀드 선정작 5편과 아

시아 다큐멘터리 네트워크 펀드 제작지원작 15편 등 총 20편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상영전.
관람료 균일 4,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cinema.piff.org)

세계영화사의 위대한 유산 월드시네마 V

3월 14일(금)-4월 13일(일) 시네마테크 부산

영화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에서부터 그동안 접할 기회가 적었던 숨겨진 걸작까지 세계영화사에 빛나는 걸작 20여편을 상영하는 고전영화의 축제 월드시네마 다섯 번째 상영전.

관람료 균일 4,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cinema.piff.org)

아동극

어린이 창작 영어뮤지컬 DREAM KIDS

14일 금요일 오후 7:00 글로벌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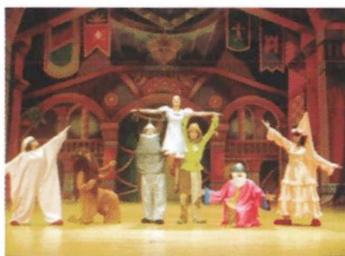
KNN 어린이 영어프로그램 'Yes, I Can'의 '씨니와 친구들'에 등장하는 꿈을 찾아주는 요

정 네이핀과 여덟 아이들의 흥미진진한 모험을 그린 어린이 창작 영어뮤지컬.

관람료 무료
문의 KNN(868-5254)

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15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6일 일요일 오후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오즈의 나라로 가게 된 도로시와 친구들이 펼쳐는 신나는 모험의 세계

가 춤과 노래로 펼쳐지는 캐릭터 뮤지컬.
· 출연/최윤주, 안정민, 김은주, 전민규, 장기엽 외
관람료 균일 12,000원(예매시 2,000원 할인)
문의 플러스기획(02-511-7115)

가족뮤지컬 헨젤과 그레텔

22일-23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그림형제의 동화를 어린이들의 시각에 맞추어 새롭게 각색한 가족뮤지컬.
· 각색, 연출/염미정

· 출연/신추미, 박경순, 이재섭, 천선미, 김효정 외
관람료 균일 12,000원(예매시 2,000원 할인)
문의 극단 서울도깨비
(02-747-4608, 050-2134-2580)

가족뮤지컬 나무요정 모리

28일 금요일 오전 10:10, 11:20, 29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천방지축 말쟁 꾸러기 세 남매가 동쪽 숲 보물을 찾아 떠나는 모험을 통해 가족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가족뮤지컬.
관람료 균일 12,000원
문의 공연기획 DUBU(02-2654-6854)

콘서트

동요나라 페스티벌

28일 금요일 오전 10:10, 11:20, 29일-30일 토-일요일 오후 11:00, 2:00, 4:00
을숙도문화회관



혼성 5인조로 구성된 국내 최초 어린이를 위한 에듀테인먼트 그룹 '프리즈'와 함께하는 어린이

를 위한 동요 콘서트.
관람료 균일 25,000원
문의 공연기획 DUBU(02-2654-6854)

행사

제 70회 부산시울림 시낭송회

12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초대 시인/강달수, 서화성, 성수자, 송인필, 이광수, 이규열, 이희철
· 찬조출연/바리톤 장은익(유라시아 오페라단 단장)
관람료 무료
문의 이해웅(017-573-6080)

전시

산목미술관 6인 초대전

1월 19일(수)-3월 9일(일) 산목미술관
문의 산목미술관(747-0970)

대학과 동등한(학점은행제) 교육기관
Guide for Your Dreaming BUSANCONSERVATORY



부산콘서바토리오악원 부산콘서바토리아트홀
BUSAN CONSERVATORY BUSANCONSERVATORY Art Hall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2동 595-61
사무실 T. 051-501-3999 FAX. 051-505-3999
홈페이지, www.bscon.co.kr

부산콘서바토리오악원

학위과정 학사/전문학사/복수(타전공)학위
(매년 2월, 8월중에 모집)
성악(뮤지컬), 피아노, 관현악, 작곡,
지휘, 교회음악(CCM)

유학과정 조기, 단기, 장기유학(유럽 전지역)
본원 자매학교 - 체코 브르노콘서바토리오

입시원 예중, 예고, 대학, 편입, 대학원 등 철저한 개인위주의 시스템

취미과정 모든 과정 개인레슨

부산콘서바토리아트홀 대관 - 연주회, 마스터클래스, 세미나 등

한국화, 서양화 현대작가 8인전

2월 11일(금)-3월 11일(화) 타워갤러리
문 의 타워갤러리(464-3939)

너, 나, 우리展

2월 19일(화)-3월 30일(일) 조현화랑



유정현 작

추상미술의 등장과 현대 미술의 전개속에서 위축되었으나 최근 젊은 작가들로부터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는 '인물'을 중점적으로 다뤄온 신진작가 유정현, 이선경, 이소연, 임자혁의 작품을 소개하는 테마 그룹전.

문 의 조현화랑(747-8835)

전혁림 작품전

2월 20일(수)-3월 9일(일) 부산아트센터



경남 통영 출신의 현대미술계를 대표하는 작가 전혁림은 그동안 독특한 색감과 구상과 추상을 넘나드는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왔다.

문 의 부산아트센터(461-4558)

한국아트미술관 2008 첫 기획전 우제길 초대전 Light 565-2

2월 21일(목)-3월 14일(금) 한국아트미술관



문 의 한국아트미술관(612-3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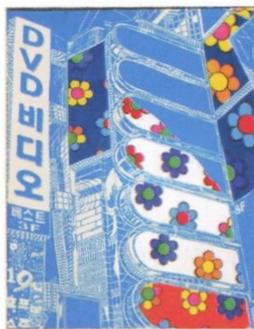
제1회 광주비엔날레에서 최고 인기상을 수상하며 '빛의 작가'로 주목받는 우제길 초대전.

최민식 사진전

2월 22일(토)-3월 30일(일) 고은 사진미술관
문 의 고은사진미술관(744-3924~5)

Leaving the Brush展 -화가, 붓을 떠나다-

2월 27일(수)-3월 30일(일)
제니스 아트 갤러리, 가양갤러리



전통적인 회화를 벗어나 새로운 재료와 방법을 통해 독창적인 화풍을 구축하고 있는 작가 박미경, 한기창, 박상희, 정재호, 이동재의 작품 30여점 전시.
문 의 가양갤러리 (752-7830)

2008 화랑미술제-부산

3월 6일(목)-3월 10일(월)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지역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지역에서는 처음 개최된 이번 2008 화랑미술제-부산은 한국 화랑협회 86개 회원 화랑이 참가해 동시대 미술의 흐름과 한국 미술시장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 관람시간/오전 10시~오후 7시(10일은 오후 5시까지)

관람료 일반 5,000원 · 학생 3,000원

단체할인 3,000원

문 의 (사)한국화랑협회

(02-733-3706, www.seoulartfair.net)

최영환 사진전 '하늘로 소풍전'

3월 11일(화)-3월 16일(일) 영광도서갤러리

천상병 시인의 시를 사진으로 이미지한 사진작가 최영환 사진전.

문 의 영광도서 갤러리(816-9500~4)

제 9회 청년작가전

3월 12일(수)-3월 19일(수) 타워갤러리

문 의 타워갤러리(464-3939)

백성혜 초대전

3월 18일(화)-4월 6일(일) 갤러리 예가



홍익대학교와 영남대학원, 미국 주립 오클라호마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한국 현대판화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성혜 초대전.

문 의 갤러리 예가(624-0933)

정봉채사진연구소 흑백사진 3인전 나무이야기

3월 18일(화)-3월 23일(일) 영광도서갤러리



정봉채 사진연구소를 수료한 박원주, 주영훈, 남영주가 '나무'를 소재로 작업한 흑백 사진전.

문 의 영광도서 갤러리 (816-9500~4)

오성진 작품전 '앨리스'

3월 25일(화)-3월 30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연속된 사건과 불연속적인 인물들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표현한 오성진 작품전.

문 의 영광도서 갤러리(816-9500~4)

2008 부산연극제 부대행사 역대 부산연극제 대상 수상작품 사진전

3월 28일(금)-4월 13일(일)

시민회관 소극장 로비

문 의 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645-3759)

2008 꽃그림전 '축제'

3월 20일(목)-4월 9일(수) 타워갤러리

화사한 꽃그림으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타워갤러리 2008 꽃그림전.

문 의 타워갤러리(464-3939)

www.wendl-lung.co.kr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주1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조제는 언제나 그 책을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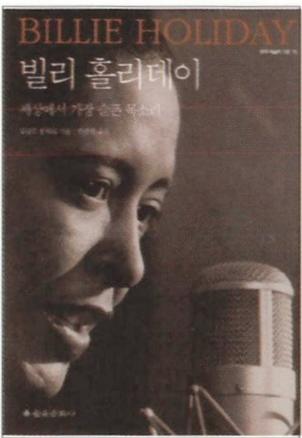
이하영 지음 / 웅진시직하우스 / 279p / 11,000원



영화를 볼 때 어떤 사람은 주인공의 옷차림을 눈여겨보고, 어떤 사람은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배경에 마음을 빼앗긴다. 이 책은 영화 속 주인공의 손에 들려 있던 한 권의 책에 주목한다. 출판전문잡지 '기획회의'에 '영화가 캐스팅한 책'이란 제목으로 연재되어 출판 관계자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던 글을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세렌디피티>, <유브 갓 메일>, <쇼생크 탈출> 등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23편의 영화와 그 속에 등장했던 23권의 책을 통해 우리 삶을 이야기한다. 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결국은 탈출에 성공한다는 내용의 영화 <쇼생크 탈출>. 주인공 앤디와 그의 친구들이 쇼생크의 도서관을 꾸미면서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교육'으로 분류한다는 이 작은 에피소드는 실은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앤디와 많은 면이 닮은 당테스의 탈옥 내용을 다룬 책이기 때문이다. 15년 수감생활 만에 특별휴가를 받은 무기수 강식이 아들을 만나러 간다는 내용을 담은 영화 <아들>에 등장하는 '데' 자가 희미하게 지워진 책 <데미안> 역시 아들에게 못 전한 아버지의 미안한 마음을 대변해주는 장치이다. 영화 속의 책을 만나보는 책.

빌리 홀리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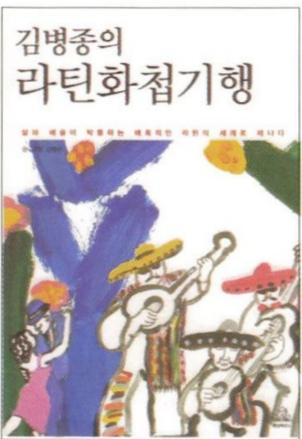
도널드 클라크 지음 / 한종현 옮김 / 을유문화사 / 760p / 32,000원



빌리 홀리데이는 재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여가수이며 광고 음악에서 사용된 노래들을 통해 국내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만 그녀에 대한 본격적인 책은 그동안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다. 빌리 홀리데이의 삶은 매우 어둡다. 이미 생전에도 그녀는 마약 중독으로 유명하였고, 선정적인 언론들은 그녀를 음악가라기보다는 흥미로운 기사거리로 취급하였다. 지은이 도널드 클라크는 철저한 자료 고증과 1970년대부터 빌리 홀리데이의 지인들에게 행해진 인터뷰 녹음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그들은 유년기, 흥등가에서 보낸 시절, 뉴욕에서의 성공, 44세에 맞이한 비극적인 최후 등 그녀 삶의 각각의 단계에서 자신이 보았던 것을 회고하고 있는데, 이 귀중한 자료를 활용한 전기는 이 책이 처음이다. 지은이는 그들의 말에서 허구와 사실을 분리해 내고, '사나움과 연약함, 철없음과 우아함, 놀라운 강인함을 고루 갖춘 홀리데이의 모순적 인간상을 깊은 동정과 존경을 가지고 편견 없이 그려냄으로써' 빌리 홀리데이 전기의 정본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빌리 홀리데이 인생의 진실을 그녀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이해를 가지고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책이다.

김병종의 라틴화첩기행

김병종 지음 / 랜덤하우스 / 280p / 12,000원



글과 그림의 경계를 넘나드는 김병종 화백이 중남미의 예인을 다룬 라틴 화첩기행집을 펴냈다. 조선일보의 인기 연재물을 단행본으로 엮은 이 책은 김병종 화백의 펜과 붓의 대상이 우리가 아닌 중남미, '라틴'으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이전 '김병종 화첩기행 시리즈'와는 확연히 다른 스케일과 감동을 선사한다. <김병종의 화첩기행>이 우리 예인의 삶을 아름답게 보듬어낸 작품이라면, <김병종의 라틴 화첩기행>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세계적 예술가와 대문호들을 만날 수 있는 라틴 예인기행이다. 쿠바,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칠레 등 남미 여러 나라를 두루 여행하면서 받았던 감동과 여운을 폭넓은 인문학적 지식과 풍성한 예술적 상상력으로 담아낸 이 책에서 김병종의 필치는 남미의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무용은 물론, 문화예술과 사회 전반을 넘나들며 거침이 없다. 헤밍웨이, 보르헤스, 네루다, 로맹 가리, 체 게바라, 에바 페론은 더 이상 몇 점의 문학작품과 희미한 사진 속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김병종의 붓끝에서 화려하게 다시 피어난다. 김병종 화백의 유려한 필력과 83여 편의 매혹적인 그림을 통해 라틴문화여행을 떠나보자.

■박현주/동보서적 <책소식> 편집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

정말 2008년을 신나게 여는 신년음악회였다. 오랜만에 손바닥이 빨개지도록 박수치고 웃을 수 있었다. 지휘자 크리스티안 술츠의 열정과 익살, 그리고 모든 연주자들의 정성을 다한 연주 덕분에 객석을 꽉 채운 사람들의 표정이 모두 화사했다. 슈트라우스의 곡들을 오늘처럼 재밌게 들었던 적이 있었던가 싶다.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OH! BEAUTIFUL BLUE NAG-DONG RIVER!’

- 최형화(금정구 장전동)

U:콘서트 유열과 클래식 만남

클래식이라고 해서 조금은 딱딱하고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별 기대없이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친숙하고 낯익은 멜로디에 흠뻑 빠지게 되어 너무나 행복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설렘과 흥분!

유열과 클래식은 정말 환상의 하모니를 만들어냈고 우리를 행복의 세계로 이끌어 주기에 충분했다.

가슴벅차오르는 행복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외쳐본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배은정(연제구 연산5동)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All You Need is Love'

지난해 조직된 직장내 합창단 단원이 되면서 단원들과 함께한 공연관람이 이번이 네번째이다. 뒷모습이 멋진 김강규 지휘자 선생님과 피나는 노력으로 화음을 이뤄내는 합창단에게 매료되어서인지 시립합창단 공연만은 빠지지 않고 있다.

감미로운 노래와 악기로 나타낸 일곱가지 빛깔의 사랑의 테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되새겨 주는 가슴 따뜻한 공연이었다. 늘 바쁘기만한 신랑이지만 곧 다가오는 결혼 6주년엔 이자리에 함께해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싶다.

-김정화(동구 수정동)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 중 3명을 선정하여 놀부집 향아리갈비 식사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모집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7~8)

부산시립교향악단 결원단원 모집

▶ 모집부문 및 전형과목

- 수석2(플룻1, 호른1)
 - 자유곡 : 모차르트 협주곡 중 1곡(전 악장)
- 단원1(비올라)
 - 자유곡 : 협주곡 빠른 악장(한 악장), 느린 악장(한 악장)
 - ※응시자는 피아노 반주자 대동, 자유곡은 원서접수시 교향악단 사무실에서 배부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8년 3월 17일(월) ~ 3년 28일(금) 17:00까지
- ※ 공휴일, 토·일요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3월 28일(금) 도착분에 한함
- ※ 실기전형 및 서류심사 2008년 4월 2일(수) 10:00
- 문의 접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607-6041~8, 팩스 051-607-6204)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청도 여행



살구꽃 핀 마을은 어디나 고향 같다
만나는 사람마다 등이라도 치고 지고
뉘 집을 들어서면은 반겨 아니 맞으랴

2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들이 떠난 곳은 감과 복숭아의 고장 청도. 2월 테마여행 당첨의 행운을 얻은 정기회원 가족들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주아, 최윤희 단원과 함께 청도 여행길에 올랐다.

청도를 생각하면 이호우 선생이 발표한 시조 속의 마을이 먼저 떠오른다. 살구꽃도 복사꽃도 볼 수 없는 2월이지만 청도를 새롭게 배울 수 있었던 뜻 깊은 여행이었다. 오전 9시, 부산을 출발한 정기회원 가족들은 한 시간 남짓 지나 청도에 도착했다. 오전에는 청도 향토사학회 박윤제 회장과 함께 청도의 문화 유적을 둘러보았다.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청도군 이서면에 위치한 자계서원. 조선 초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김일손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중종 13년(1518년)에 지은 자계서원은 원래 이름이 운계서원이었다. 연산군 4년에 일어난 무오사화(1498년)로 김일손이 화를 입자 서원 앞을 흐르는 냇물이 3일 동안 붉게 변한데서 서원 이름이 훗날 자계서원으로 불리게 되었다.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칭송 받는 탁영 선생의 선비정신을 이야기 하듯 2월의 매서운 바람에도 자계서원의 푸른 대나무가 여행객들을 반긴다.

자계서원에 이어 옛날 관리들이 머물렀던 도주관, 고종이 세운 척화비, 청도지방의 일반 행정업무를 보던 중심 건물 청도동헌, 옛 교육기관인 청도 향교, 얼음을 저장하던 석빙고를 둘러보았다. 유쾌한 입담으로 진행된 오전 일정은 막연히 '소싸움'의 고장으로만 알고 있던 청도가 오래동안 간직해 온 속내를 들여다 본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청도석빙고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6개 석빙고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석빙고입니다. 겨울에 강에서 채취한 깨끗한 얼음을 저장했다 여름에 사용했는데 이 얼음은 누가 사용했을까요?”

보물 제 323호로 지정된 청도석빙고는 조선 숙종(1713년) 때 만들어졌는데 길이 14.75m, 폭 5m의 장방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 현재는 양쪽 벽을 이어 주던 반원 무지개 형태의 홍예(虹霓)가 4군데 남아있다. 석빙고는 동·서로 뻗은 긴 구조로, 서쪽에 문을 두었으며 계단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면 경사진 바닥이 보인다. 박윤제 회장의 특별한 배려로 처음으로 석빙고에 들어가 내부를 꼼꼼히 둘러보았다. 석빙고 안에서 올려다보는 아름다운 홍예에 절로 탄성이 쏟아진다.

청도의 명물 추어탕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눈과 입이 즐거운 2월 테마여행의 오후 프로그램에 들어갔다. 오후 프로그램은 감와인 터널과 신도마을의 딸기따기 체험.

일제시대 때 철도로 이용된 감와인 터널은 2006년부터 청도의 명물 감으로 만든 감와인 저장 창고로 이용하고 있다. 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이 은은한 터널의 불빛 속에 와인과 어우러진 우리 가락을 연주, 회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찾아간 곳은 신도마을. 새마을운동 발상지로 알려진 신도마을에서 딸기따기 체험을 했다. 마침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족들이 2008년 신도 정보화마을을 찾은 첫 딸기 체험팀이라 마을주민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추운 바깥 날씨와 달리 따뜻한 온실에는 굵직굵직한 딸기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몇 번 손이 가기 무섭게 회원들 손에는 신선한 딸기로 가득 채워졌다.

짧은 일정이지만 음악과 역사 탐방, 농촌 체험을 함께한 하루, 2월 테마여행은 청도의 훈훈한 인심까지 전해져 더욱 즐거운 하루로 기억된다.

〈진행, 글/백경옥〉

※ 테마여행 협찬 (주) 레임 투어편

청도 여행추천코스

자계서원→도주관, 척화비→청도 동헌→청도 향교→석빙고→감와인터널
→새마을 발상지 신도마을 딸기 따기체험

※ 4월은 울산고래박물관, 서생 배꽃마을로 또납니다. 참가하고 싶은 회원님은 예술에의 초대에 있는 엽서를 보내주십시오. 4월에는 부산시립무용단이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3월 14일 창녕 여행 당첨자

신규가입 당첨자

김경석(남구 용당동)	김두한(남구 용호1동)
김연하(부산진구 가야1동)	백민경(금정구 구서1동)
박재우(해운대구 우1동)	박정현(연제구 거제 4동)
이순임(남구 대연3동)	장은정(사하구 다대1동)
전우봉(부산진구 당감3동)	정현정(부산진구 범천동)

엽서당첨자

김동임(북구 화명동)	박종순(남구 용호3동)
이경미(남구 대연3동)	이병순(북구 만덕 3동)
장귀하(해운대구 우2동)	조해신(연제구 연산4동)
차상년(영도구 창학2동)	차희종(수영구 민락동)
조종호(부산진구 전포1동)	반택만(남구 대연4동)

부산시립무용단 2008 찾아가는 무용

— 부산지역 10개 복지관 순회 공연 —



■ 주요 일정

- 3월 3일(월) 10:00 기장군 노인복지회관
 - 3월 4일(화) 10:30 학장종합사회복지관
 - 3월 5일(수) 15:00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 3월 6일(목) 14:30 백양종합사회복지관
 - 3월 7일(금) 14:00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 3월 10일(월) 10:30 금곡종합사회복지관
 - 3월 11일(화) 15:00 부산시노인종합사회복지관
 - 3월 12일(수) 11:00 영진종합사회복지관
 - 3월 13일(목) 10:30 전포종합사회복지관
 - 3월 14일(금) 14:00 두송종합사회복지관
- 안무 및 구성 : 홍기태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부산문화회관에서는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우리 춤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 부산시립무용단 '2008 찾아가는 무용-복지관 순회공연'을 마련한다. 2005년부터 열린 '복지관 순회공연'은 평소 부산문화회관을 찾을 수 없는 문화소외층에게 우리춤의 신명을 선사하면서 큰 박수를 받아왔다. <2008 찾아가는 무용 - 복지관 순회공연>은 3월 3일 기장군노인복지회관 공연을 시작으로 학장종합사회복지관,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백양종합사회복지관 등 10개 복지관에서 태평무, 살풀이춤, 설장고놀이, 동래야류 등 대표적인 한국 전통춤 레퍼토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성남,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연합캠프 개최

1월 29일

8시30분 부산을 떠나, 눈이 새하얗게 내리고 쌓여있는 창 밖을 보면서 우리는 3박 4일 몸담을 수안보에 도착했다. 도착 후 연회장에 짐을 내린 후 식사를 하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기다리는 동안 미리 와서 우리를 반겨주던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숙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캠프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사항을 들었다.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작년 연합캠프에서 만났던 터라 더 반가웠다. 역시 연합 캠프의 장점은 다른 지역에 나와 비슷한 특기 생활을 하는 친구들과 만나서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 시간과 석식시간 이후 연합 합창연습을 하는데 타 지역합창단과 섞여 앉아 합창연습을 하면서 목소리를 듣고 배울 수 있고 신선한 자극을 받아서 색다른 느낌을 받았다.

1월 30일

아침운동과 아침식사를 한 후 연습에 들어갔다. 합창단별 연습 때는 전 단체 안무 연습 때 부를 곡을 연습하고, 내일 있을 연주를 위한 노래연습, 공연을 위한 새로운 곡 연습을 하였다. 식사 후 약간의 휴식 시간을 마친 후 안무 특강을 듣기위해 연회장에 모여 합창연습 때 연습한 곡을 부르며 게임도 하고 조별로 곡에 어울리는 안무를 우리끼리 만들어서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발표 후 심사에서 우리합창단이 우수상 4개 중 3개를 받아 다른 단체의 부러움을 샀다. 내가 부산시립 합창단에 속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부산문화회관 제 2기 문화대학 수강생모집 안내

부산 문화의 메카인 부산문화회관이 문화적 감성계발을 위하여 참신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고품격 강좌를 개설합니다. 한국예술계 최고의 리더들과 함께하는 부산문화대학 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운영기간 : 2008. 4. 2 ~ 5. 21 / 기간 중 총 8회 실시
- 시 간 : 매주 수요일 14:00~16:00 각 회별 수업시간 변경될 수 있음
- 모집인원 : 100명(일반인)
- 신청기간 : 2008. 3. 3(월) ~ 3.25(화)
- 교육강사 : 한국예술계 저명인사(이윤택 외 7명)
수 강 료 : 50,000원(교재비, 공연2회 관람료 포함) ※계좌번호 : 부산은행 036-01-033022-8 부산문화회관
- 문 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607-6045 문화대학 담당자

■ 일정 및 프로그램

4. 2(수)	김원명	경성대학교 교수	음악상식 얼마나 알고 계세요?
4.10(목)	김승업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	문화공간 현황 및 지역문화
4.10(목)	부산시립합창단 공연관람		
4.16(수)	이윤택	극작연출가, 동국대학교 교수	연극을 보는 재미
4.23(수)	이인숙	부산박물관 관장	박물관 이야기
4.30(수)	우석봉	부산발전연구원 박사	문화 관광도시 부산
5. 7(수)	장길황	PIFF마케팅 본부 본부장	PIFF와 부산축제
5. 9(금)	부산시립교향악단 공연관람		
5.14(수)	이명아	부산아트매니저먼트 대표	공연기획의 실제
5.21(수)	박성희	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우리 것이 좋은것이야!

신청방법

- 방문접수 or 팩스 접수
- 문화대학 수강자 최종명단은 2008. 3. 31(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
- 수강료 납부순서로 모집 마감하며, 접수명단은 매일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게시
- 신청서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

1월 31일

아침 운동을 하고 합창단별 연습을 위해 연습실로 가니 예전에 공연한 DVD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공연하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쑥스럽다. DVD를 다보고 오후에 있을 연주를 위해 노래와 안무를 연습했다. 연습 후 영남대학교에서 오신 교수님의 오페라이야기를 듣는데 연습동안 피곤해서인지 깜빡 졸고 나니 합창단별 연습이다. 순서는 과천→부산→성남으로 진행되었다. 과천은 오페라의 유령을 연주하였는데 아주 색다른 공연이었다. 우리합창단은 약간의 실수를 제외하고는 아주 완벽한 공연을 했다. 성남은 마지막에 풍선을 합창으로 하면서 완벽한 안무를 소화해내 큰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 날 밤이라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서로 어울러 이야기도 하고 우정을 더 돈독하게 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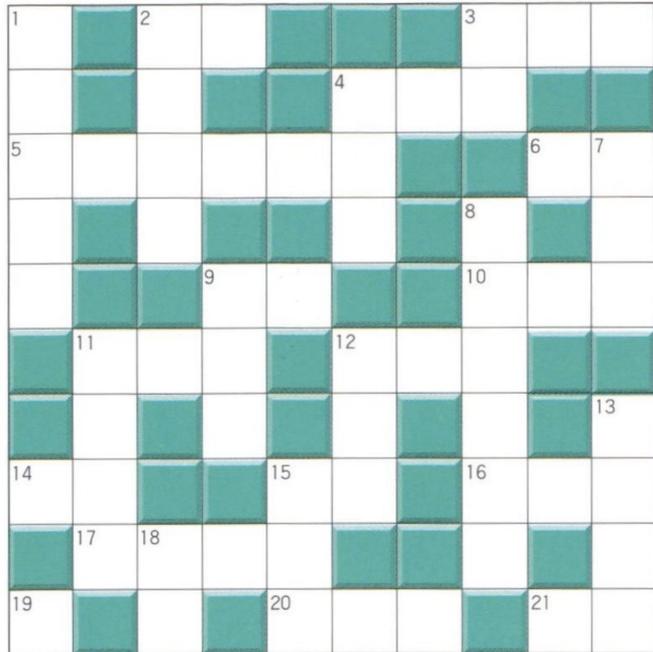
2월 1일

아침 식사 후 연회장서 전 단체가 커다란 원을 만들어 한명씩 악수를 하며 다음 교류연주회를 기약하였다. 너무 친해진 터라 헤어지기가 섭섭하고 아쉬웠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찍고 버스를 탔다. 먼저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과천, 성남시립합창단 단원들이 배란다로 나와 우리를 배웅 해주었다. 새로운 수석 지휘자선생님과 함께한 이번 연합캠프는 마지막 동계캠프라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이 글은 마지막 동계 캠프를 다녀온 이유진, 임으뜸 단원이 쓴 후기입니다.)



퍼즐로 배우는 문화 상식



가로문제

- 기성의 가치관과 제도, 사회적 관습을 부정하고 인간성 회복, 자연과의 직접적인 교감 등을 주장하며 자유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젊은이들.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생겨나 전 세계로 퍼졌다.
- 불탑(佛塔), 사원(寺院)을 가리키며, 포르투갈어 'pagode'에서 유래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인 탑골공원을 〇〇〇공원이라고도 부른다.
- 길들이지 아니한 말이나 소를 탄 채 버티거나 길들이는 경기. 미국 서부의 카우보이들이 서로 솜씨를 겨룬 데서 시작됐다.
- 바이올린류(類)의 현악기 가운데 가장 크면서, 가장 낮은 음역의 악기. 보통 4~5현(絃)으로 음색이 중후하고 여운이 길다.
- 속이 빈 대에 구멍을 뚫고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
- 밥을 지은 솥에서 밥을 푼 뒤에 물을 붓고 데운 물.
- 색이 바랬거나 구겨진 종교 의상, 또는 그러한 의상을 즐겨 입는 풍조. 원래 어원은 '수확기의 포도' 또는 '포도주 숙성' 등을 의미하는데, 숙성된 포도주처럼 편안한 느낌을 주는 옷이라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 올해 처음 관객 400만명을 돌파한 핸드볼을 소재로 한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연출한 감독.
- 미국의 발명가. 인쇄 전신기, 전화기, 백열전등, 축음기, 영화 촬영기 등을 발명했으며, 1,300가지가 넘는 특허를 얻어 발명왕이라 불린다.

- 노동쟁의 행위의 하나. 겉으로는 일을 하지만 의도적으로 일을 게을리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방법. 사보타주.
- 군대에서 관악기와 타악기를 연주하는 일. 또는 그런 군악.
- W.스콧의 소설 '람메르무어의 신부'를 기초로 한 푸치니의 비극오페라로,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세력다툼에 희생된 한 쌍의 연인의 비극을 그린 작품이다. 원제는 '람메르무어의 〇〇〇.'
- 번갯불이나 부싯돌의 불이 번쩍거리는 것과 같이 매우 짧은 시간이나 매우 재빠른 움직임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무속의 종교제의. 무당이 음식을 차려놓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며 귀신에게 인간의 길흉화복을 조절하여 달라고 비는 의식.
- 경기도 개성에 있는 돌다리. 고려 말기의 충신 정몽주가 이방원에 의해 철퇴를 맞고 죽은 곳으로 유명하다.
- 배구에서, 공격수가 공격하기 쉽도록 공을 가볍게 띄우는 일.

세로문제

- 평소 저녁시간대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주부, 여성 청중들을 위해 부산문화회관이 지난 해부터 마련한 기획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3월 6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공연을 시작으로 총 7회가 열린다.
- 산스크리트어로 '눈이 사는 곳'이란 뜻으로, 파키스탄, 인도, 중국, 부탄, 네팔에 걸쳐 있으며,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한 14개의 8000미터 봉우리가 모두 이곳에 모여 있다.
- 몽골족의 이동식 집을 중국어로 일컫는 말. 게르.
- 미국에서 유래된 법률가 양성 학교로서 법학 전문 대학원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된다.
- 우리나라 엔시소프트(NCsoft)가 1997년 신일숙의 장편만화를 컴퓨터 온라인 게임으로 개발한 최고의 인기게임으로, 국내 최초 단일게임으로 매출 1조원을 돌파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 향해에 나섰다 난파당한 주인공의 무인도 생활을 그린 영국작가 다니엘 디포의 장편소설.
- 서울 도성의 남쪽 정문이라 통칭 남대문이라 불린 조선시대 성문으로, 우리나라 국보 제 1호였으나 지난 2월 12일 방화로 인해 소실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 조선시대의 역사 군담 소설. 조선 인조 때의 명장 〇〇〇의 무용을 전기체로 그린 작품.
- 아르헨티나의 영부인이었던 에바 페론의 별명으로, 동명의 영화와 뮤지컬로 제작되기도 했다.
- 사막 가운데에 샘이 솟고 풀과 나무가 자라는 곳.
- 조선 후기의 화가 장승업의 일대기를 그린 임권택 감독, 최민식 주연의 영화. 2002년 칸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다.
- 1960년 발표된 최인훈의 중편소설. 분단의 문제를 남북 모두 비판적으로 다룬 최초의 소설로, 이념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전쟁과 그 속에서의 인간의 삶을 사회적, 역사적 흐름에서 파악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호 정답

마	술	피	리							
젤		노			보	바	리	부	인	
란		키		카		그				강
	레	오	나	르	도	다	빈	치		
	임			멘		드				파
수	덕	사			마		라	오	스	
호		설	화		패	러	디		키	
지	휘		성	주			오	구		
	모	빌			비	너	스			장
파	리		유	현	목		타	악	기	

■ 큰집 식사권

- 백환진(사상구 주례3동)
- 이진숙(사상구 학장동)
- 이혜리(연제구 연산7동)
- 박미연(연제구 연산5동)
- 정경선(사하구 다대2동)

■ 필하모니 식사권

- 김은희(해운대구 좌동)
- 정경아(서구 동대신동1가)
- 김혜미(부산진구 범천동)
- 이재은(금정구 부곡3동)
- 서순영(해운대구 반송3동)

■ 가마골 소극장 초대권

- 이주리(서구 동대신동)
- 안선희(사하구 신평1동)
- 김창주(연제구 거제3동)
- 이재홍(김해시 내동)
- 장주혜(남구 대연3동)

■ 동보서적 도서상품권

- 김창애(해운대구 좌4동)
- 이명희(사상구 모리3동)
- 성영화(동래구 칠산동)
- 심현아(해운대구 좌2동)
- 김솔마(남구 문현2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음식점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051) 245-0042 www.kamagol.co.kr

Sine 1981 -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 퓨전레스토랑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저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628-2592

◆ 연주회 뒷풀이 장소로 더욱 좋습니다. (20~80명)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습니다.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08년 3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2008 하반기 부산문화회관 대관안내

대상 극장_대·중·소 / 전시장_대·중
대관내용 대관기관_2008년 7월 ~ 12월(6개월간)
※ 무대정비로 인한 대관 불가기간

대극장 _ 7. 19(토) ~ 8. 18(월) (31일간)
중극장 _ 7. 19(토) ~ 8. 18(월) (31일간)
소극장 _ 7. 1(화) ~ 7. 31(목) (31일간)

접수기간 2008. 3. 18(화) ~ 3. 31(화)(10일간)
접수시간 월 ~ 금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대관심의 및 결정 통보

접수 마지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사용허가 통보

기본방향

- 순수문화예술 공연·전시 우선 → 대중 예술 공연 제한적 허용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전시
- 종합예술공연 진흥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 창작 또는 유망신인 작품 발표 기회 제공
- 소규모 연주회는 소극장으로 대관안내, 대·중극장 편중지양

대관신청 및 허가 절차

상담(구두, 전화) → 신청 및 접수(적정여부) → 대관심의(일정조정) → 통보

대관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서 1부, 공연계획서(프로그램, 프로필 등 첨부) 1부

사용료 납부

계약금(기본시설 사용료의 10%) : 사용허가후 30일내 납부, 계약체결

잔 금 : 공연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

※ 기한내 사용료 미납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용자 측의 사정에 의거 대관 취소시 납입된 사용료 중 기본시설 사용료의 10%는 시에 귀속됩니다.

부산문화회관 20주년 기념 정기회원 특별혜택

해외여행비 3%할인 이벤트

※ 특별할인 혜택은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 로 예약확정 하실 때 적용됩니다.

전국 대표전화 1544-1759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추천 봄골프여행	세부직항 APG751 소토그란데 리조트 4일 36홀 45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유류할증료, 공항세, 기사, 가이드 팁, 호텔, 조/석식, 그린피+캐디피, 라운딩시 유용한 'HG 멀티팩' 제공 (룸당1개), 여행자보험	골프! 무한도전 AAG702 방콕 무제한 골프 라운딩 5일 84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유류할증료, 공항세, 기사, 가이드 팁, 호텔, 조/석식, 공항PICK-UP, 주말라운딩 포함, 'HG 멀티팩'제공(룸당1개), 여행자보험	럭셔리 골프라운딩 CSG740 광저우/심천 4일 미션힐 36홀 1,34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유류할증료, 공항세, 기사, 가이드 팁, 호텔, 조식/석식, 그린피+캐디피+락커, 골프, 골프백 항공커버증정, 여행자보험
	동남아 선진국 ACP702 홍콩/싱가폴/바탐 6일 99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유류할증료, 공항세, 기사, 가이드 팁, 호텔, 식사(특식3식), 빅토리아피크, 홍콩야경, 싱가포르플라이어, 센토사섬, 여행자보험	또 하나의 중국 ACP731 홍콩/대만/화련/야류 6일 1,07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유류할증료, 공항세, 기사 가이드 팁, 호텔 (특식3식), 리펄스베이, 빅토리아피크, 윈타이신 사원, 중정기념당, 화련, 여행자보험	동남아 3개국을 한번에 ACP703 태국(방콕)/싱가폴/홍콩 8일 1,22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유류할증료, 공항세, 기사, 가이드 팁, 호텔, 식사(특식6식), 산호섬, 왕궁, 새벽사원, 센토사섬, 보타닉가든, 빅토리아피크, 여행자보험
	거대한 대륙 CNP751 북경/만리장성 4일 49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유류할증료, 공항세, 기사, 가이드 팁, 천안문, 자금성, 서커스,왕부정거리, 이화원, 명13릉, 만리장성, 발맞사지 체험, 여행자 보험	관광만족 AAP701 방콕/파타야/타이거쥬 5일 67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유류할증료, 공항세, 기사, 가이드 팁, 식사(특식3식), 호랑이공원, 산호섬, 에메랄드사원, 새벽상원, 나이트바자 공연 관람, 여행자 보험	세계적 유산 AVP731 캄보디아 5일 64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유류할증료, 공항세, 기사, 가이드 팁, 특식2회, 무선수신기, 앙코르왓, 타프롬, 롤로오스, 지뢰박물관, 톤레삽호수관광, 여행자보험
달과 별의 나라 EMP712 터키일주 9~10일 1,990,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유류할증료, 공항세, 호텔, 특식3회, 아스펜도스극장, 에페소, 데린구유, 전세선 유람, 라오디게아, 톱카프 궁전, 와인시음, 여행자보험	서유럽 완전정복 EWP754 몽블랑 서유럽 5개국 11일 3,090,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유류할증료, 공항세, 호텔, 슬리퍼, 대영/루브르/바티칸, 몽블랑전망대, 고속열차, 에펠탑, 세느강 유람선, 베니스, 여행자보험	정열의 나라 EMP722 스페인/포르투갈/지중해 9일 2,890,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유류할증료, 공항세, 기사, 가이드 팁, 호텔, 성가족교회, 알함브라, 세비야 대성당, 산토토메교회, 프라도미술관, 여행자보험	



온가족 신나는 바다속 여행!

대한민국 대표 해양테마파크
Busan Aquarium

전시 생물 수 400여종 35,000여 개체, 세계 각지의 열대 담수어와 해수어 등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아쿠아리움에서 신비로운 해저세계를 경험하세요

부산아쿠아리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busan-aquarium.com * 행사 및 예약 문의: 051-740-1700



공연의 준비에서 감동까지
그 시작은 박스아트컴과 함께...
☎ 633-2655

문화·예술 공연의 홍보 도우미
지하철 포스터 광고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 184 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 184 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



하여름 밤의 꿈

A Midsummer Night's Dream

연작 Ⅲ. 셰익스피어

번안 이 정 태

연출 손 기 룡(부산시립극단 수석연출)

2008. 4. 4(금) ~ 5(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금요일 오후 7시30분 /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37회 정기연주회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THE 437TH SUBSCRIPTION CONCERT



지휘 · 박은성



피아노 · 김대진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다단조 작품18

교향곡 제2번 마단조 작품27

2008. 3. 7(금) 오후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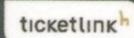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_ 부산광역시

문 의 _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607-6101~4
www.bsculture.busan.kr

입장권 _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예 매 _ 부산은행 전지점



※ 무료셔틀버스 운행